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1 1981년11월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November 4, 1981

NOV 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폴랜드인 우대 난민 6천명 수용

균형잃은 이민정책

유럽인 우선, 아시아·아프리카인 외면

(오타와) 캐나다는 82년도에 인도차이나에서 오는 난민수를 4천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주로 폴랜드인인 동유럽국가 난민을 1천명 늘려 6천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2일 의회에 제출된 이민성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는 82년도의 피난민 이만쿼터를 금년의 16,000명에서 2,000명이 줄은 14,000명만 허용키로 했다.

물론 이 숫자는 독립이민이나 가족이민을 제외한 피난민 케이스에 한한다.

UN통계를 인용한 외무성관리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에는 인도차이나 난민 50만명, 오스트리아에 수용돼 있는 동유럽(주로 폴랜드) 난민 2만을 포함, 약 천만명의 난민들이 산재해 있다.

UN통계에 의하면 이 숫자의 반인 500만명의 난민이 아프리카에 있으나 액쉬디 이민장관 보고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지역에서 500명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보고는 "이 아프리카 난민중 대부분은 현지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쟁상태중인 중앙 및 남아메리카 난민쿼터 1,000명은 82년에도 그대로이다.

캐나다는 190만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흩어져 있는 중동에서도 400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캐나다가 이민을 받고 있는 미국, 호주를비롯한 선진 7국중 인구당 가장 높은 율의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랜드 난민 2만명중 근 ⅓인 6천명을 받아들이겠다면서 50만의 인도차이나 난민은 겨우 4천명으로 제한, 신종 캐나다판 "백호주의(白濠主義)" 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백호주의(白濠主義)－호주가 이민자를 받아들일때 우선적으로 백인위주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호주는 아직도 이 정책을 견지, 한국등 아시아민족의 이민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제적7, 정학57명

서울대, 반정부시위와 관련

(서울3일=연합) 서울대학은 최근 캠퍼스내에서일어난 반정부 시위와관련, 7명의 학생을 제적처분 하고, 57명의 학생을 정학 조처했다고 3일 대학당국이 발표했다.

서울대학 당국자는"대학은 더이상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에 의해 대학의 안전이 위협당하는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동기야 어쩌되었든간에 앞으로 분별없는 어떠한 학생시위도 엄중히 처리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학 반정부 학생시위는 지난달 일주일간 계속된 개교기념 가을축제동안 일어났었다.

대학당국자는 이보다 먼저 학생시위주동자 6명을 제적처분 했다.

◇캐나다 최고의 미인 카렌·발드윈양(18). 2일밤 토론토에서 있은 캐나다미인 선발대회에서 영예 82년도 미스캐나다로 뽑힌 발드윈양이 왕관을 바로하고 있다. 발드윈양은 방년 18세로 런던에 산다.

모국방문합창단원 모집

한인YMCA합창단

토론토의 한인 YMCA합창단(지휘 안병원)은 내년 여름 서울서 열리는 와이즈맨즈세계대회 특별출연 및 한국주요도시 순회공연, 모국TV,래디오출연에 대비,널리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25세 이하의 교포남녀로 적격심사(오디션)는 오는 14일(토)하오5시30분 Y회관(15 Robina Ave)에서 있으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신청장소 : Korean YMCA(536-1166)

모국출장공연시 비행기표는 각자부담(일부할인)이며,숙식비 일체는 무료이다.

현재 동 합창단 스탭은 지휘 안병원,반주 김진숙,총무 호세환 제씨이다.

동합창단의 후원이사회(이사장 이영현,사무장 강찬영)는 지난6월19일 32명의 한인사회 저명인사로 구성,재정.행사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극동방위 적극

유사시 일기지 사용가능

(도쿄3일=연합) 일본은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모를 우발사건(전쟁)에대처, 미일이 공동제안한 합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3일 도쿄에서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등 일본유수의 신문들은 일본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다음달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극동방위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해 왔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캐스파 웨인버거 미국방장관과 오무라 일본방위청장관은 회담을 갖고 공동연구착수에 원칙적인 합의를보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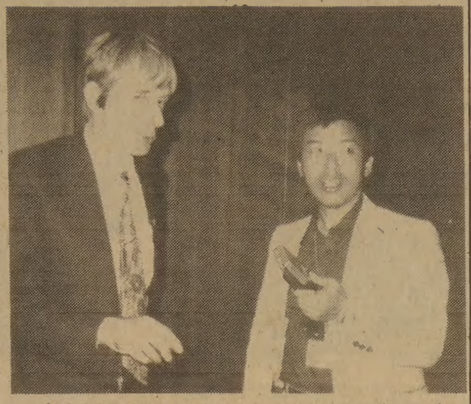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은 지금껏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었다.

미,일회담에서 양측은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군사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번 일본정부의 이같은결정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③

수상 마사지사가 여자냐?남자냐?

세일즈맨같은 인상, 풀기자로 뽑혀



◇이태은특파원이 주한캐나다 대사관 바우어대사를 단독 인터뷰하고 있다.

◇9월27일 서울에서

호텔 18층부터22사이가 우리들의 숙소로 정해졌고 수상은 2016호실,수상비서진및수행원들은 22층,기자단은 18층,그러니까 수상룸을 중심으로 위아래 2층간격이다.

한실슈트를 택한 수상방은 문갑으로 그려진 자개농,자개상,신선도병풍「시집가는날(김운호 화백)」「산수도」(노수현)등 동양화폭이 걸려있어 더욱 운치가 있었다.

곧장 짐을 풀자마자 CP기자와 같이 수상실을 찾았다. 부재중임을 알고,호텔내 수위밍풀로 가보았다. 수상은 수영을 이미 마치고「맛사지룸」으로 들어갔다.

한국경호원 4명, 캐나다경호책임자 한명이 경호를 맡고있었다.

약1시간쯤 지나서 우린 다시 그곳을 가서 누가 수상을 맛사지 해주었나 알아보려고 했다. CP기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호기심이 대단했고,마치 유전이나 발견할듯이 이것에 대해 다른 기자에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심심부탁한다.

한참후에 흰까운을 입은 작달막한 사람이 나타났다. 분명히 여자가 아니다.

CP기자는 실망했는지영어로 무턱대고 나는 기자인데 당신이 정말로 우리 수상 맛사지를 해준 사람이냐고 묻는다. 내가 천천히 통역을 해주었다. 그는 장학수(31세)씨로 7년간 이직업을 갖고있으며그는 이곳에 오기전 서울서 일년간 맛사지 기술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한시간의 요금은 얼마냐고 했더니한화₩7,150.

맛사지실 문을 나서니, CP기자는 내등을 치면서 특종은 아니지만 아무튼「스페셜소스」이니 꼭 비밀을지켜 달라면서 자기방으로 불이나게 뛰어가 버렸다.

나도 내일 태권도시범준비를 위해서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연락했으나 때마침 88년 올림픽유치관계로「바덴바덴」출장 중이라고 한다. 또 사무총장을 찾았으나 역시해외 출장중이다. 일이 다틀렸다고 생각 했으나, 만약을위해 국기원의 강원식, 김순배 두부원장에게 시범준비를 해 주시도록 요청, 쾌히 승락을 받았다.

오후4 시부터 호텔2층에 마련된 뉴스룸에서 한국정부측의 한국경제에관한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연사는 김재익박사(대통령경제문제 특별보좌관)에서 김기완박사로 바뀌었다 김박사는"한국은 캐나다보호무역정책으로 곤란을 겪고있다.수출품의 52%이상이 수입제한 정책에 묶여있다"면서 캐나다 무역정책의 비난부터 시작했다.

계속해서 이동복(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장)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의 「남북대화 관계와 한국실정에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대변인의 설명이 끝난후「펜로빈슨」의원이 토론토의 최홍희씨의 이북방문에 대한것도 알고있느냐고 질문, 이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면서구체적인것은 언급을 회피했다. 한국정부측 기자회견후 주한캐나다대사 바우어씨의 인터뷰도 있었는데토론토에서온 한 기자가 한국의 인권문제에 질문, 바우어 대사는 캐나다측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녁6시부터 트루도수상은 호텔23층 회의실에서주한캐나다 18개 회사들과정상회담에대한 대책등을 비밀회의로 주재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저 장사꾼들 때문에 수상의 해외 나들이가 잦아진다고 못마땅해 했다.

드디어 2층 뉴스룸에서는 수상보좌관,공보관 입회하에「풀」기자 10명을 선정하는 회의가 시작되었다. 결정은 제수로서 진행되었으며 TV,통신사,래디오,신문등의 순으로 뽑혔다. 나는 예상했던대로 24표를 얻어 6번째로 뽑혔다. 아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풀」기자 선정이 끝나자 기자단 회장으로부터 즉시 수상출입기자단 회원으로 가입하라고권고를 받았다. 다른 기자들도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다. 뛸듯이 기뻤다.

※「풀」기자 — 중요행사 취재때 기자들의 수효가너무 많으므로 몇명을 선정, 이들이 공동취재를 하고 공동으로 보도한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에 한함 ——

* Schneider Bacon	500g	2.09
* Schneider cooked ham		1.79
* Mini= sizzler		1.99
* Weiner	1 lb.	1.85
* Gift- chocolated box (Lowney)		
- Pot of gold		4.29
- All nut		5.19
- Marashino cherries		4.29
- Half & Half		4.29
- Ovation- mint stick		1.85
- Selection chocolate		2.55
- Almondillos		2.45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걀, 양파, 감자를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HWY 401 · Q.E.W. · EVANS · HWY 427 · KIPLING · RANGEMORE RD · TORLAKE CR

X-MAS SHOWROOM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TEL. 461-3555
DANFORTH · DON VALLY PARKWAY · COXWELL AVE. · GERRARD · LAKESHORE BLVD.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위해 우리는 가장 많은 장난감, 선물, 크리스마스카드, 장식용, 아동용 모델등 많은 물건을 준비했읍니다.

CASH & CARRY 또는
1월1일에 지불 할 수 있게 크레딧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진열룸
매주: 일요일 오전9시~12시
목요일 오후6시~오후9시
12월까지

전화연락 또는 약속 : 461-3555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W

100여명 연습에 혼연일체 열중
한인합창단"메시야"대공연
12월4일, 메시홀에서

"그만 그만 그게아니오. 그음이 아니요 이거요, 핑. 네 떵."

오는 12월4일 헨델의 메시야 대공연을 앞두고 열을 올리는 한인합창단의연습광경 지휘자 박재훈박사의 질책이다.

지난79년8월 토론토교민들을 중심으로 창단된「한인합창단」은 이번 메시홀에서 있을「메시야」대합창이 창단후 6회째 공연이다.

메시홀은 약2700명을 수용하는 대공연장으로 동양계 캐네디안에게는 처음으로 대여된다고 알려졌다. 메시홀은 주로 정통고전음악 공연에만 쓰여지는, 토론토의 카네기홀 이다.

이번 한인합창단의 메시야공연은 그동안 짧지만 5회나 공연을 가졌던 동 합창단의 성과와 한인들의음악수준을 다시한번 인정받을수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된다.

합창단 연습장소인 연합교회 성가실에서 만난 박박사는 이번공연에 대해 "작년 연합교회 성가대가 한번 치뤘던 곡이나 정말 힘든 곡이다. 더구나 아마추어들만 모인 우리합창단은 음악적 기교보다 노력으로 힘든과정을 극복, 공연은 무난히 성공할것 같다"고 말했다.

약60명의 혼성으로 구성된 동합창단은 이번 메시야공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연습해 왔다.

박박사의 하드 트레이닝은 잘 알려져 조금만 연습에 늦어도 꾸중을 각오해야 한다.

대공연을 한달앞둔 동합창단은 연습에 박차를 가하기위해 주2회의 강행군을 하고있다. 단원의 대부분은 기혼자들이나 단원이 아닌 가족들도 연습장에나와 간식준비, 베이비시터등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12월 4 일 메시홀에 메시야 대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열중인 한인합창단원들. 원내는 지휘를 맡은 박재훈 박사와 반주자 고희경양.

이번 공연에 반주를 맡는 노스욕.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토론토에서는 토론토심포니 다음의 명성을가진 악단이다. 씨알한국인학교장 유회자 박사는 하프시코트와 올갠반주를맡는다.

이밖에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성악가들 4명이 특별출연, 이번 공연을 빛내게 해준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소프라노 이정애씨는 미국캐톨릭 대학교에서 음악석사학위를 받은후 80년에휴스톤오페라단 소속으로 오페라 수녀·엔젤로카의 엔젤로카역 외 많은 오페라의 주역으로 출연했고, 최근에도 한국국립오페라단과 같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춘희)에 출연했었다.

알토로 출연하는 배정숙씨는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지난 10월에는 템플대학교에서 있은 푸치니의 가극"나비부인"등에 출연한 역량있는 성악가이다.

테너를 맡은 옥인걸씨는 그동안 토론토에서도 몇차례 공연으로 교민들에게낯이 익다. 국제음악콩클성악부문에서 여러번 입상했고, 현재 로웰주립대학교성악과장으로 재임중인 옥씨는 카네기홀 독창회를비롯, 로저·와그너 합창단의 수석독창자로 오랫동안 활약했었다.

마지막으로 바리톤 신경옥씨는현재 텍사스대학 부교수이며, 오페라「대춘향전」「베토벤교향곡 9 번」등 많은 대곡에 출연했다.

토론토한인합창단 상임지휘자 박박사는 서울대음대, 한양음대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찬송가등 수많은종교음악을 작곡, 작곡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약 2시간30분에 걸쳐 공연될 이번 메시야는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역사적 대합창이다.

우선 합창단 멤버만도한인합창단 60여명에 한인연합교회 성가대 30~40명의 대합창단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독창자들의 수준이나 지휘자의 실력등에서 볼때 어느 직업합창단 못지않은 수준을 보여준다.

결 혼 축 하

신랑 : 유균환군(유제성 씨 4남)
신부 : 이미숙양
때 : 11월14일(토) 정오
곳 : 세인 폴 성당
주례 : 고마태오 신부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발렌주엘라 주화 큰 인기
$5만 발행권 획득, 주문쇄도,
하루 만개생산, 우편주문 밀려, 시장엔 못내

LA다저스의 투키피처 페난도 발렌주엘라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주화가 발행되어 날개돋친듯이 팔리고 있다.

은으로 된 이 기념주화는 한개에 24달러 95센트에 우편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어찌나 주문이 쏟아지는지 주문후 2주일이 지나야 물건을 받을수 있는 형편이다.

발렌주엘라에게 현금 5만달러를 주고 기념주화 발행권을 독점한 텐텍스 주조회사는 딸리는 물량을 대기위해 하루1만개로 생산량을 늘릴계획이나 그것도 우편주문량을 겨우 공급할 뿐일반 시장에 내놓을 엄두를 못내고 있다.

텐텍스사는 금년 크리스마스까지는 일본시장에서도 이 기념주화를 구입할수 있을것이나 그때 가격은 34달러 95센트로 약간 오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주화 이외에도 벨트버클과 펜던트가 주화보다 5달러 비싼값으로 팔리고 있다.

주화구입자의 대부분은 발렌주엘라의 고향사람들인 멕시컨들이며 이밖에도 상당수의 라틴계 출신들이 사들이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텐텍스사는 미국판매 열기가 식을 즈음해서 멕시코와 중남미 제국에 판매망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한다.

◇날개돋친듯 팔리는 발렌주엘라 주화

북괴, 국군기지에 총격
유엔사, 북측에 강력항의

(서울3일=연합) 한국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측에 전문을 보내, 지난 10월31일 북괴군이 비무장지대 건너편 국군 전초기지에 총격을 가한데 강력한 항의를 했다.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전해진 항의서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우리측은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북괴군에 응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무장지대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측에 돌리는 유엔군사령부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양측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게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고 명료한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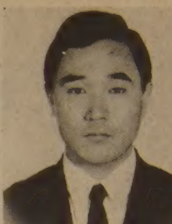
한국 국방부는 2일, 북괴군이 10월31일 비무장지대 건너편 한국군 전초기지에 대해 17분동안 기관총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연천 북동쪽 15km지점 서부전선에서 일어났다.

제5계절

이민 훈련병

박 충 도(문협회장)



◇박충도씨

이곳에 이민와서 얼마되지 아니하였을 때 가끔"박형, 이민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민생활에서 느끼는 요즘의 심정은 어떤지요?"하는 질문을 받을때마다"지금 나의 이민생활은 마치 내가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 훈련병 생활을 하던 때와 같다고 생각하며, 나의 지금 심정은 훈련병 생활때의 바로 그러한 심정이지요."라고 끝잘 대답하곤 하였다.

내가 대학3학년인 1956년에 논산훈련소에 신병으로 입대하였는데, 신체검사가 끝나고, 훈련병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빡빡 깎았을 때 교관이 집합을 시켜놓고 일장훈시를 하던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훈련병이다. 따라서 사회에서의지위나 학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훈련병이라는 입장을명심하고 열심히 훈련에임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훈시였다.

훈련병 속에는 대학원학생, 대학생, 회사원, 공무원등 각양각색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연령차이도 상당히큰 편이었다. 그러나 머리를 깎고 훈련병옷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한 순간부터훈련병이라는 하나의 계급에 귀속하게 되었고, 생활도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되었다.

과연 머리를 깎고 훈련복을 입고보니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도 없지 만 며칠이 지나자 8월의 강렬한 태양빛에 검게타서 꼭 흑인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신분이문제가 될 까닭이 없다. 모두 새까만 훈련병들인 것이다.

물론 고된 훈련생활을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 탈영하는 사람, 입원하는 사람등 낙오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고된 훈련기간을 거쳐 병과별로 배속되어 나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였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그때의 훈련병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고생하면서 훈련받던 이야기를 지금도가끔 한다.

나는 캐나다에 이민온우리들도 어쩌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과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가끔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국에 있을 때는 모두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심하였을 것이며, 학벌도 박사에서부터 석사, 학사, 그리고 무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정도였을 것이나 이곳 캐나다에 입국한 순간부터「이민자」란 한 계급에 귀속하게되어 이곳의 풍습, 언어등 모든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자기의 과거를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이민 일등병」으로 밖에 취급받지 못한다. 우선 언어가통하지 않고, 이곳 사정도 하나 모르며,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니 어쩔 것인가?

이들「이민 일등병」들은 영어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지하철 타는것부터시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가치관의 전도, 질서의 역류등으로심한 정신적 타격을 받는수가 많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수가 흔히 생긴다.

그러나 훈련소의 훈련병처럼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이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고된 이민생활이나마 보람있게 헤쳐나가면 각자의 능력에따라 새로운 사회를 발견하게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흐뭇한 웃는 낯으로 이민초기에 고생하던일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야기 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비록 박사학위 가진분이 공장이나 그로서리 상점에서 일을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자신을 후회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 착실한 새로운 생활관을 갖는날반드시 행복을 느낄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햅쌀이 나왔고 값이 내렸읍니다

한국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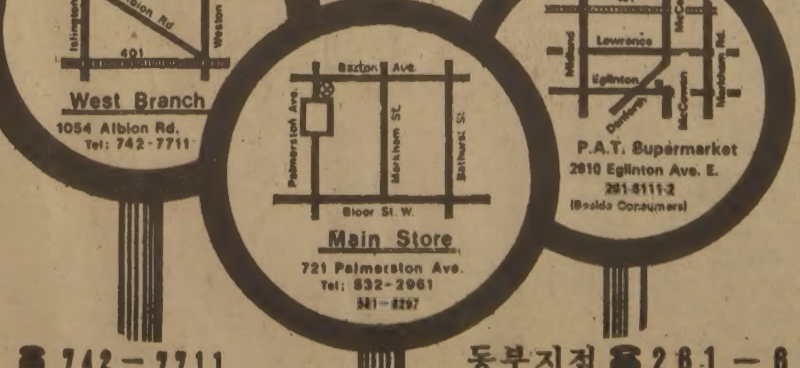
"김장 스페샬"

배추, 다꾸왕무(왜무우 김치),
한국고추가루 Lb당 2.89
새우젓 Lb당 99¢
멸치젓 Lb당 99¢
마 늘 Lb당 1.49
생 강 Lb당 1.49

위의 스페샬은 한정된 재고가 매진될때까지입니다.

★드디어 동부지점도. 11월15일(일)부터 일요일에도 OPEN합니다.

일요일 : 11 : 00AM~7 : 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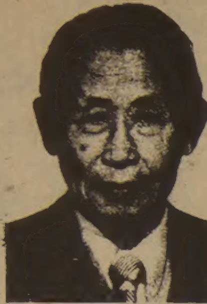


서부지점 ☎ 742-7711
동부지점 ☎ 261-6111
본점 ☎ 532-2961

한 국 식 품

◇<범용기>①의 표지

8순잔치 겸해 성황이룬
김재준박사 출판기념회



◇장공 김재준 목사

토론토 교포로서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원로급 기독교 지도자 장공(長空)김재준 박사의 자서전 <범용기>(1)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하오7시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익선목사(연합교회)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은300여명의 축하객이 만원을이룬 가운데 박재훈박사(한인합창단 지휘자)의 주악과 찬송가 합창, 강인병 목사 기도로 시작, 성경(디모데후서4 : 6~8)—정동석목사 봉독, 강근환 목사의 설교「제자도」, 독후감((이석현·유정자), 축가(김행자), 축사 홍순관 목사·박찬웅, 저자 답사, 사위 이상철 목사등 자녀, 손주등 자손들의 합동큰절올리기, 일동의 찬송가 제창및 박희민 목사의 축도로 제1부 순서를 마치고, 이어 만찬회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의 설교자 강목사는 약40분간에 걸쳐저자의 인간프로필과 종교지도자로서의 큰 자취를 사도 바울과 아씨지의 성 프란시스를 예로들어 실감나게 표현했다.

답사에 나선 노목사는 "별로 한 일도없는 평범한 사람을 위해 이처럼 성대하게 축하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라면서 소박하고 겸손한 그 인품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한가지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거니와남은 여생을「예」와「아니오」가 뚜렷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남은저술<범용기>계속분은 6,7권이될 것이라고 비쳤다.

이날 잔치는 김박사 내외분의 80회탄신 축하회를 겸한 출판기념회였다.

올해 80세를 맞이한 김재준 목사(박사)는 함북아오지 태생으로 경원 향동학교, 고건원 보통학교, 회령농업학교, 중동중학, 일본 청산학원신학부, 프린스톤대학, 피츠버그의 웨스턴신학교 출신으로 직업은회령군청, 웅기금융조합 서기, 용현학교, 귀낙동학교, 신아산학교, 평양 숭인학교, 용정 은진중학등의 교사역임, 조선신학원 설립자중 1원 및 교수직등을 역임했음이 이번 범용기 제1권에 실려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저자의 유년시절부터 조국해방까지의 회고담이 실려있다.

※신사륙판<4×7>267면, 값$9, 독립신문사 발행.

한국일보
533-2361

<단 편>
모 래 성 ②
박 성 민 (문협회원)

"개새끼들!"

기영은 가래를 뱉듯 또 한번 욕을 내뱉었다. 그래도 그의 울분은 가라앉지가 않았다. 때마침 기영의 눈에는 큼직하게 써놓은 "왕대포"란 글씨가 들어왔다. 일종의 반발심으로 그는 쉽게 마음을 먹기로 했다.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영은 "너희만 마시냐. 나도 마신다"는 식으로 먼지낀 유리문 사이로 들어갔다.

술집은 아주 작았다. 겨우 서너개의 나무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나이든 아주머니 혼자서 더위에 부채질하는 것도 잊어버린채 반쯤 졸고 있었다. 기영은 냉막걸리를 한되 시키고 앉았다. 이상하게 이 동네에는 유독 이런 종류의 식당인지 술집인지조차 구별이 안되는 싸구려 술집이 많았다. 국수와 잔소수를 파는 리어카로 시작하여, 튀김집과 싸구려 대포집이 특히 버스종점 부근에는 한집 건너 붙어 있었다.

냉막걸리를 마셔도 갈증은 풀리지 않았다. 지금쯤 설악산을 오를 친구들이 생각났다. 애초 기영은 방학을 맞은 친구들과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설악산을 거쳐서 강릉의 경포대, 그리고 속초로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기영은 자신이 아마 그 일행과 산을 오르고 있었다면 더위 정도는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쉴수도 있고, 얼음물보다 차겁다는 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설악산 골짜기의 맑음을 강조하던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너석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다가 오줌을 싸고, 다시 그 물로 밥을 해먹어도 된다고 입에서 침을 튕기면서 말했다.

그땐 친구들은 방학을 거의 한달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도 기영을 포함한 그들은 지도를 펴놓고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침을 튕기며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던 녀석의 이야기와, 여름엔 바다가 최고라는 이야기가 절충되어서 그들은 산과 바다에 동시에 갈 수 있는 동해안쪽을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참 배낭을 빌린다, 버너를 빌린다, 준비하는 도중에 기영은 방위병 소집장을 받은 것이었다.

갑자기 말단 공무원답지 않게 얼굴 가득 개기름이 흐르던 구청의 병무담당 직원이 생각났다. 기영이 훈련소집장을 받았을 때는 이민수속이 거의 끝나고, 비자까지 받아쥐고 여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때였다. 그래 병무청에 알아본 결과 전가족이 이민갈 경우엔 소집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청직원 녀석도 이것은 서류상의 착오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면제해 주겠다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 찾아간 기영에게 큰 소리로 뻥을 쳤다. 그는 마치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투로 말을 했다.

그러던 녀석이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비자사본을 떼어오라.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오라. 내일 다시 오라. 자꾸만 헛걸음을 시키더니 훈련소집 전날에 가서야 그것도 오후 늦게 소집에 참가해야 된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자꾸 헛걸음을 시키는 그의 속셈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정쇄신"이니, 면허증 사이에 5백원권을 집어넣었던 운전사가 뇌물수여죄로 걸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올 때였으므로 기영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영이 그 구청직원과 타협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영은 그 자신이 웬지 좀더 진실해지고 싶었다. 조국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좀더 보람있고 진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마치 임종시에는 모든 사람이 좋은 말만 골라 하는 식으로…. 떠나는 마당에 구태여 아름답지 않은 기억을 기영은 남기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훈련소에서 머리를 빡빡 깎이고, "방위"란 두 글자가 큼직히 새겨진 방위복을 받았을 때, 기영은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안타까운 심정이 그의 작은 가슴을 가득 채웠다.

(계속)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⑧⑧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첫째로 의형제끼리나 매우 가까운 친구들은 보통 부인들을바꾸려고 생각해 본다.

에스키모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방문객은 주인의 부인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것은 전혀 근거가없는 거짓 말이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수많은 백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런것을 요구한 사실을 두고 지어낸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이누이트는 상당한 기간후에야 손님의 청을 들어주니까 그런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한 가장이 사향소를 잡으러, 혹은 먼데사는 친척집에 가거나 또는 멀리있는 무역소에 물건을 사러 가는등 장거리 여행을 해야할 때가 있다. 이럴때는 여정이 위험하기 때문에부인과 자식들을 집에두고떠난다.

이 가장이 목적지에 닿아서 그곳에있는 의형제를 만나면 그 의형제는 자기부인의 동의를얻어 부인을 먼곳서 온 의형제에게 제공, 체류중 부인을 공용 한다.

이런일은 백인사회 법에는 저촉되지만 나는 완벽하고 건전한 타협이라고생각한다. 바렌에서는 사생아의 문제가 전혀 없으며 아버지쪽의 질투가 없다.

이할미우트는 어떤 연고로 태어난 아이들도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하여귀염과 사랑을 준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애들이 있다는 자체를고맙게 여긴다. 남자손님에 의해서 생긴 아이도 조금도 차별없이 양육된다. 이것이야만인의 행동일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백인사회에서 부모때문에 낙인찍힌 사생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것도 야만인의 소행이 아닌지?

절도와 부정직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면 백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할미우트는 이런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절도는절대로 일어날 수 가 없는일이었다. 불행하게도 유아살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먹는 풍습이 남아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죽은사람의 살을 먹는 것을 범죄라고 부를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일로인한 죄가 있다. 북극을 탐험하면서 고난을 당한 많은 탐험대원들이 죽은 사람의시체를먹고 생명을 건졌다다른인종을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우리는이들 백인만은 불쌍히 여긴다.

오히려 죽은사람을 먹는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사람이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용기"라고. 어린 시절에 굶어서 죽은 부모의살을 먹고 겨울을 견뎌낸 한 늙은 여인과 이야기해 본일이 있다. 그것이30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지워버릴수 없었다. (계속)

걸 작 漫 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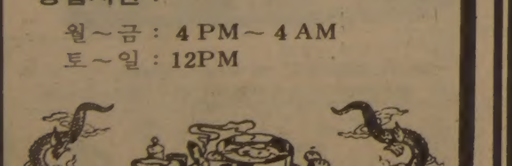
「서로 바꾸고 싶다고?」
"Wanna swap?"

"북미의 25時를 지켜보는 한국일보는 휴식이 없읍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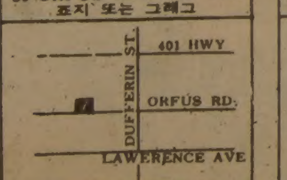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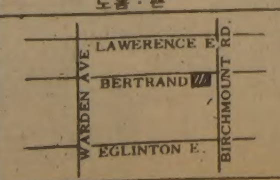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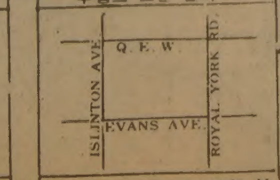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늘씬 조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셜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레그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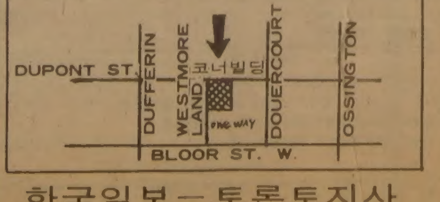


평 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빌리



WEEKDAY 7:30 4:00P.M.
토요일 7:30-11:30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교민(독자, 광고주, 필자등)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이전파티에 대한 자리를 마련키로 하였사오니 바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아 래—
일 시 : 11월14일(토) 오후2시~7시
장 소 : 본사
주 소 : 1025 DUPONT ST.
(두폰×도버코트)
전 화 : 533-2361



한국일보—토론토지사
지사장 김 명 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illegible]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 : 535－4441 MRS. 김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OAKWOOD & DAVENPORT
☎ : B) 656－3020, R) 960－076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입주하여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볼링톤(볼링톤지역
출퇴근가능)
☎ : 665－2866(토론토), 639－2736(볼링톤)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 : 244－5248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오전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입주하셔서 두아이와 살림을 도우실분 구함 :
주 : 210달러 드림
☎ : B) 248－4013, R) 244－0765

주말에 일할 여학생 캐쉬어 구함 :
스카보로 지역
☎ : 438－1528

출퇴근 하시면서 4개월된 애기 보아주실 분
스카보로지역(미드랜드×핀치)
☎ : 299－1103(오후5시 이후 전화요함)

허드레일 하실분 구함
오리엔탈 파레스
☎ : 533－3545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매매및 양도

플라자 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600, 아스킹 $32,000, 리스8년+옵션
☎ : 255－5038 미세스 BORDA

그로서리 스토아와 아파트매매 : 그린우드 레이스 트랙
에 있음. GOLD YEAR REALTY의 JOHN CHING
에게 연락바람 ☎ : 960－4610, 977－6347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드라이크리닝 가게세일
세일 $145,000 FOR YEAR,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50,000, 오렌지빌 내에 있음(미시사가에서
30분거리), 38년간 운영된 이익좋은 비즈네스임
몬트리올·트러스트 CO. DAVE LAL(데이브·랄)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비즈네스를 갖고있으니 문의바람
☎ : 275－5555, 276－3229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이주관계로 팝니다. 희망자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STEAK식당,
6일매상 2,000달러(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UR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
가격 : $6,900+스탁
☎ : 657－1424 MR. CHRIS(크리스)

이윤 좋은 가게 팝니다
(+집)
☎ : 465－4385

KNOB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연간 세일 : 백만달러
리자이나 지역에 있음.
토론토연락처 : 624－1289 미스타 정

가정형편상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포함
☎ : 656－7753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사무실 투자 : 롱 리스
액설런트 TERMS
☎ : 675－3744, 249－544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로서리와 미트스토아
약$1000,000, 두 아파트를 포함해서 잘설비되 있음.
최적의 위치 HENRY ZWIERS에게 연락
☎ : 705－326－4131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IA, ONT.
☎ : 705－325－6193

동양식 레스토랑을 하기위한 좋은기회
L. C. B. O. 라이센스 있음. $300,000이상, 번영하는
MUSKOKA에 있음, 그외 여러 좋은 장소에도 있음.
CLARENCE LABOSSIERE
☎ : 705－326－7468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도나스 샾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or

크로스웨이 꽃집(선물)팝니다
가격 : 17,000달러. 영업시간 짧고
일요일 휴업
☎ : 535－1355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친 ☎ : 745－5555

①버라이어티(핀볼17개 포함, 주6일)
②그로서리(주6일)
③FISH & CHIPS(주5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악기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동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행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기 타

SOME JEWELLERY쏘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캐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평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모눈종이 위의 生

趙善作 作
金光培 畫
<241>

모눈종이 위의 生⑧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 뒤 나는 [illegible] 가만히 어머니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곤 했다. 수줏간이나 부엌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가 나는 이따금씩 어머니께서 「[illegible]안」하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런 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illegible] 집을 떠나 어머니의 묘지에 다녀왔다. 그런 내 외심은 마치 허물만 남아서 너울너울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와 같았다. 때로는 「우리 [illegible]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엄마 삶의 마지막 증인이구나」 하셨던 어머니의 음성이 떠올라서 나는 부산P호텔의 코피숍으로 달려 가기도 했다. 어머니께서 앉아 계셨던 바로 그자리에 앉아 노인의 잔디밭과 자그마한 석탑(石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 보았던 자나무 숲의 그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께서 가신뒤 한주일쯤을 나는 그렇게 보냈다.

그래도 한번에 한차례씩은 곽곽집에 들르곤 하는 은애, 건넌방의 은애 친구를 노영지와 혜정이는 내게 퍽 위안이 되었다. 식욕을 잃었고 며끼씩 굶고 있을 때, 또는 불면증으로 밤을 밝힐때 그녀들은 번갈아 나와 함께 있어주거나 내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거나 했다. 그런데 그즈음 노영지와 혜정이에게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사복을 입은 형사 두사람이 찾아왔었는데그들은 노영지의 방을 샅샅이 수색하고 돌아갔다. [illegible]은 노영지와 혜정이가 모두 집을 비웠을 때 였고 그들의 한 사람이 내게

『아가씨 이방 여학생에게 말요. 이렇게 생긴 남자친구가 자주 찾아왔었죠?』

하며 사진 한장을 보여 주기도했다.

나는 그 사진속의 남자를 알고 있었다. 내가 부산여행을 떠나기 얼마전 노영지는 그와 함께 병원으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한민열씨와 결별(訣別)한 사이라는 것을 내게 증거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러나 그가 노영지의 방에 자주 찾아왔었던지 어떤지 병원에서 기거했던 나는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들은 우리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그들 두 사람의 사복에게 붙잡힌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휴학을 했다는 빨리 비천 뉴스가 나온 것은 얼마 전이었고,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리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던 또 하나의 세계는 뒤죽박죽 들끓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혜정이는 그날 곧 풀려났고, 노영지는 다음 날 나왔는데 [illegible]은 이튿날 곧 잡혀갔져 그들의 고향으로 떠났다. [illegible]에 나는 어머니께서돌아가신 이후 뜻밖으로 초조했던 며칠을 보낸셈이었다.

그리고는 곧 내게 다시 정적(靜寂)이 찾아왔으며, 문간방에서 그래도 사람 사는 소리를 내며 함께 살았던 노영지 마저 없어지자 더욱 딱막한 느낌이었다.

이제는 내 이야기로 돌아갈 차례이다. 세화의 노래가 세상을 휩쓸고, 민회가 돌아오고, [illegible]씨가 민회와 술바꿈질을 벌이고, 어머니께서 섭섭히 돌아가시고, 그 술이 내 몸의 구석구석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문간방의 노영지마저 떠나는등 일련의 사건 뒤에 내게 찾아온 적막감(寂寞感)가 그것은 어쩌면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것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내가 부산 여행에서 아니 운암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온 뒤 그들의 잠잠함이었다. 한민열씨도 「J시인도 U감독도, 또는 그주변의 나를 기억할만한 어떤 사람들도 마치 바람이 잔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히 있었으며, 내게 있어서 그것은마치 세계의 침묵과 흡사한 것이었다.

油價 年內 10%線인상

主輸入先 사우디産 2弗引上따라

電氣料도 6%올릴 方針

都賣物價영향 1·5%내외 豫想

정부는 年內에 油價와 전기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30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油價인상후 발생한 인상요인과 29일 OPEC(석유 수출국기구)의 油價單一化 조치에 따른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 국내油價를 최소한 10%선까지 인상하고 전기요금도 6%선에서 인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우리나라가 연간 들여오는 총55만6천배럴의 60%에 달하는 사우디産이 油價單一化에 따라 평균 31달러 44센트에서 33달러44센트로 오르게돼 4·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됐으며 지난 4월19일 油價인상후 발생한 인상요인이 10월말 현재 8·8%로 모두 13·5%의 인상요인을 안고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우디産보다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는 이란등 일부산油국의 원유가격이 내림에따라 高油價도입분에 대한 보전액이 줄어들어 약3·4%의 인하가 가능할것으로 보고있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油價를 10%가까이 올리고 油價인상에따른 전기요금도 약6%인상요인이 발생, 한꺼번에 인상시킬 방침이다.

동자부관계자는 油價單一化에 따른 OPEC회원국별 油價가 불분명하고 일부산유국의 원유가는 소급적용시킨다는 발표가있었으나 소급시기가 분명치않아 국내 유가인상폭은 다소 변동될수도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OPEC의 油價單一化를 계기로 국내油價와 전기요금을 現實化시키기로 방침을 굳히고있는것은 油價10%인상이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5%에 지나지않아 연내 도매물가를 17~18%선유지에 어려움이 없는데반해 인상시기를 늦출수록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내년에 현실화시킬경우 내년도 物價安定시책에 장애요인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상요인이 5%이상이면 자동적으로 국내유가를 조정하겠다는 連動制방침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인상하게되면 가뜩이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인상을 미루어 왔었다.

油價 34弗 單一化합의

OPEC會議 내년末까지 凍結하기로

【제네바(스위스) 29日AP=】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은 29일 ①새로운 기준유가를 현재 배럴당 32달러와 36달러로 되어있는 2중구조를 폐지, 34달러로 단일화하고 ②가격상한선을 최고41달러에서 3달러인하, 38달러로 고정하며 ③새로운 기준유가를 1982년말까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계석유공급의 약80%를 감당하고있는 지난30개월간 난맥상을 보여온 가격 경쟁을 종식, 처음으로 가격단일화에 성공, OPEC의 21년사상 처음으로 공식가격의 인하를 단행했다.

제네바에서 이례적으로 단하룻동안열린OPEC석유상회의는회의종료후성명을발표하고 『61차OPEC특별회의는 석유시장의 현여건을 검토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유가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아라비안 라이트원유를기준으로 삼은 OPEC기준유가를 11월1일부터 배럴당34달러로 정하고 유질과 수송거리를 감안한 가격차등제를 두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최대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값을 현행 배럴당 32달러에서 34달러로 2달러(6.25%)인상함과 동시에 감산을 단행하며 리비아와 알제리등 고유가국들의 유가는 4달러의 프리미엄을 포함 공식가격을 40달러내에서 38달러로 인하한다.

OPEC는 올들어 지난5월과 8월 두차례의 협상에서 油價單一化에 실패한끝에 이번의 3번째 회의에서 가격단일화를 이룩한것이다.

越冬대책 萬全 南總理지시

南悳祐국무총리는 30일『연탄수급등 越冬대책에 힘을기울여 국민들의 겨울생활에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南총리는 이날상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科技處는 획기적인 연탄가스중독사고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對韓外交자세등 소노다外相비난 日自民黨內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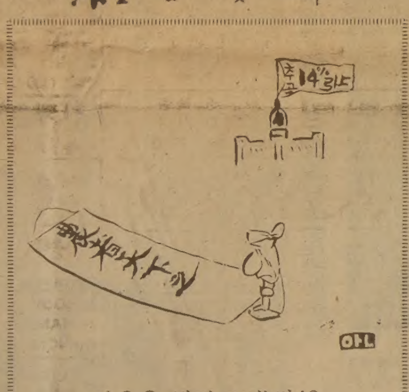
【東京30日=聯】日本自民黨내에서 소노다·스나오(園田直)외상의 對韓·對美외교자세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11월의 내각개편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自民黨이 29일 소집한 외교조사회, 안전보장회 합동회의에서 소속의원들은 소노다외상의 빈번한 망언을 문제삼아 비현실적인 외교자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對韓經協 적극協調 홀드리지, 日에촉구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홀드리지美국무성차관보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협회에서 『일본은 한국이 요청하는 안전보장차원에서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30일 時事통신이 보도했다.

社会漫評



다음은 뭐라고 쓴담!?…

「低質炭」小委구성

국회商工委는 30일하오 低質炭문제 소위원회와 생산기술사업단문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低質炭문제小委는 民韓黨이 제출한 調査特委구성안이 29일 국회운영위에서 폐기됨에 따라 民韓黨이 小委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이날 구성에 합의했는데 小委는 내주초부터 選炭현장과 貯炭場, 연탄공장을 둘러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등을불러 저질연탄이 제조되는 구조적문제를 파헤쳐 이에대한 대책을 세울예정이다.

◆低質炭문제小委=李興洙(위원장) 高源駿 金榮孝 金正男 尹國老 鄭濟昊(이상民正) 金文錫 金炳午 申孝休 李元範(이상 民韓) 金永生(국민) 金順圭(議政).

教育稅등 10個稅法 審議착수

國會常委

專門委員、財産稅부가 再考주장

국회는 30일하오 豫決委를 열고 80년도 決算과 豫備費 지출승인의件에대해 정부측의 제안설명을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이는한편 財務委는 교육세법안등 정부가제출한 10개稅法안을 일괄上程,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음으로써 稅法심의에착수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內務 農水産 商工 建設등 4개常委를열고 소관부처에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財務委 河政佑전문위원은 교육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재산세에 교육세附加는 중산층의 稅부담輕減과 국민생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기본시책등을 고려할때 많은 無理와 租稅저항이 예견되므로 전면재검토할것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검토보고는 이어『재산세에는 이미 각종부가세가 부과되고있어 여기에 다시 교육세를 부가한다면 재산세의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할뿐만아니라 오는88년 올림픽개최에따른 財源조달책으로 그기간까지 부가되는 재산세가의 급격한 稅부담의증가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교육세時限의 연장문제에 언급,『교육財源의 추가소요가 오는86년까지 限時的 목적세로 충당될수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에 그대부분을 의존하고있는 현실에서 87년이후의 추가소요財源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없는한 防衛稅의 경우와같이 그時限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교육세의 酒稅에대한 附加방법에 언급,『酒類에는 酒稅가 부과되고 방위세가 附加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있는데 다시附加稅로 교육세가 부과된다면 부가가치세의 증가와함께 가격상승을초래하고동시에 酒類에 대한부가세로서의방위세와 교육세에관한 控除의 명확한 규정이없으므로 二重課稅의 우려가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세를신설하는경우 목적세의형태가 바람직하며 만일既存稅目에부가한다면 租稅저항이 가장적으면서 충분한稅收目的을 뒷받침할수 있는 부가세원을 선택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河전문위원은 또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른바 遞減的정률공제의 혜택은 특히 30만원내지 70만원소득계층의 부담 경감을 가져오게 될것이므로 상대적으로는 低所得층의 세부담경감의 수단으로는 未洽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또 근로소득세공제의 신설문제에 대해『저소득층의 稅부담경감을 위해 최저세율 또는 人的공제수준을 조정하는것은 그것이 稅收의수준을 결정하는데 중대한영향을 미치게되므로 근로소득세공제액을 인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商工委 徐錫俊상공장관은 『전국의 造船業體는 中型이 8개, 小型이 1백55개로서 과당경쟁을 벌여 赤字를보고있다』면서 『계획造船이나 制度金融으로 적자를 타개하는 방법외에 특히 造船所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점차 통폐합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業種別 중소기업조합이 시설과장비만 갖춘다면 工振廳이 가지고있는 검시권한의 일부를 조합에 허용하겠다』며 『정부기구축소조정에 따라 산하단체합리화도 곧 단행하게 되며 이때 亂立한 중소기업지도기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農水産委 高建농수산부장관은『금년도 고추수매량은 5천톤으로 이미 1백36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고추를 저장할수 있도록 고추건조기 보급을확대하겠다』며 『이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계산토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마당 추곡생산비가 수매가를 웃돌경우 별도의 간접지원시책을통해 差額이 보장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中小型造船所 점차 통폐합

디알로 니제르外相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30일상오 청와대에서 니제르공화국의 다우다·디알로外相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과 이트환 니제르대사 (미국常駐)가 배석했다. (사진)

한편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시간에 별도로 디알로 외상부인을 접견, 환담을 나눴다.

在日대한부인회 會長등23명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30일하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在日대한부인회 중앙본부의 裵順姬회장등 간부23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強力」檢事에 專門교육

내년부터 初動수사단계부터 警察지휘

대검은 「강력사건」에관한 경찰의 수사를 돕기위해 내년부터 강력사건담당 검사들에게 전문교육을시켜 이들로하여금 초동수사단계부터 경찰수사를 지휘케할 방침이다.

許亨九검찰총장은 30일『사회의안녕과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사건을 조기에 해결해야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전담검사의 소수정예화로 빠르면 내년초부터 경찰에대한 사건수사를 효율적으로 지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이 연내에 실시할예정인 검찰의 전문화교육계획은 검사와 수사관교육으로 분리되는데 강력사건담당 검사들은 각 강의를통해 적절한 수사 가없다는점을 고려, 각의는 사건경험이 풍부한 대검검사가 맡되 주로 선진국의 관계 서적을 연구한뒤 세미나를통해 수사지휘능력을 기르는한편 과학수사가 앞서있는 美國과 日本에도 파견, 실무연수를 쌓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不正蓄財로 환수된 不動産

土地 4百65萬坪 건물45동

建設委 金周南건설장관은 현재 土地評價를하는데 있어 토지평가사와 鑑定書로 二元化돼있는것을 앞으로는 一元化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柳昌昌토지개발공사사장은 『정부로부터 매각처분을 위탁받은 부정축재환수재산은 토지5백63필지 4백65만5천평 (싯가1백30억원) 건물45동 (싯가10억원)』이라고 밝히고『이중 9월말현재 매각처분한것은 토지2백77필지 27만6천평 (싯가42억원)、건물20동 (싯가5억원)으로 매각처분액 47억원은 모두 농어촌후계자육성자금으로 농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말까지 매각되지않은 잔여분은 내년부터 직접처분토록하겠다』고 밝혔다.

柳사장은 또 정부에서 대규모宅地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한 開浦지구에서 택지 총46만평중 9월말 현재 71%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民正、政府에 책임추궁키로

事前협의없이 追更案86億삭감

民正黨은 경제기획원측이 30일새벽의 국회豫決委에서 民正黨측과 사전협의없이 民韓黨의 요구에 따라 올해追更예산안에서 86억원을 삭감해 준것을 중요한 사태로 보고 정부측에 대한責任을 추궁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문제를 논의했는데 의원들은『그러한 행정부측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것이며 이번기회에 무슨조치가 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民正黨은 이 사태에 대한 責任을 물어 30일새벽 豫決委에서 追更예산삭감 조정에 나섰던 간부들의 引責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豫決委는 이날 정부原案통과를 주장한 民正黨과 예비비삭감등을 주장한 民韓、국민、議政同友會가 맞서 논란을벌인끝에 정부原案에서 86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追更案 통과 86億원 삭감

국회豫決委는 30일새벽 정부가 제출한 純규모 1천9백75억원의 금년도 제1회追更예산안가운데 86억원을 삭감, 1천8백89억원으로 조정된 追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80年歲計잉여금 1천4백億發生

李承潤재무부장관은 30일『80년도 일반회계의 歲入결산액은 6조6천3백52억원, 歲出결산액은 6조4천8백61억원으로 1천4백91억원의 歲計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오 국회豫決委에서 80년도 決算및 예비비사용에 관한제안설명을 통해 『歲計잉여금 가운데 1천2백56억원은 移越예산재원으로 다음연도 歲入에 사입하고 나머지 純잉여금 2백35억원은 81년도 追更예산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18개특별회계 세입은 4조3천88억원이며 歲出은 4조2천80억원으로 1천8억원의 歲計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地平線

아흔이 다된 노인은、아니 두남녀는 68년만에 다시 만난 애인이었다한다. 1912년 고교를 나온뒤 헤어져 제가끔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다. 68년이 지나 두남녀는 각각 89세와 87세의 홀어머니가 돼서 그옛날에 이루지못한 꿈을 이뤘다. 그것은 지난9월 천도원이요 목수 신인 랄프·브라운이라는 국사람이 새장가를 든 얘기다. ▼그런가하면 전화 한통으로 「백년해로」의 맹세를 취소한 부부도 있다. 수원미군으로 근무하고있는 한 여군이 남편을 걸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이달초에 알려진 사실이다. 남편은 이사가버려 알수없고、남편은 인길석재판에서 국제전화로 법정선서와 증언을했다고한다. 태평양을 건너 한국땅에서 전화 한통으로 남편과 헤어진 기가찰 일이다. ▼남녀의 만남이란 그만큼 엄숙한 것이기도 하지만、그만큼 허무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하면 「사랑」의 만남을 담보로하고있는 현대의 핵가족은 엄숙하다기 보다는 허무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한해에 1백18만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것은 인구1천명중 5·1건으로 20년전보다 2·5배가 된다. ▼이혼을 석은죽 마시듯하는 판이고 보면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은「메어 치나 둘러치나」가 된다。10년전만해도 52만3천쌍이 있던 동거남녀가 작년엔 1백56만쌍이 됐다고 한다。아예 짝을정해놓지도않고 혼자사는 독신인구는 전체가구중 23%로 1천7백80만가구나 된다。가족제도의 위기요인의하나다。▼하지만 그는 것은 미국처럼 세계를 앞질러가는 나라의얘기다。『키스와 순결은 관계가없다』는게스 이제 막 젊은이들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고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키스와 순결의 의미」라는 한 라디오·인터뷰작품에 나온 학생들의 말은 예를 들어『키스는 하나의 피부접촉에 지나지않는것』이요『감정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따위다. ▼『간통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못한다』고 영국의 성공회가 발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부부란 육체적결합이상의 결합이어야한다는 것이다。이번엔 오랫동안 문제돼온 가톨릭신자의 이혼의 문이 열리게됐다。결혼은 신성해야되지만、사실상 불가능한 결혼생활은 청산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것이다。핵가족시대의 가정을지키는 현실적방법에 눈을돌렸다는 뜻에서 한발짝 진보라고 것이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할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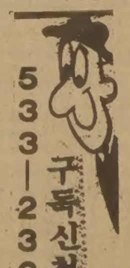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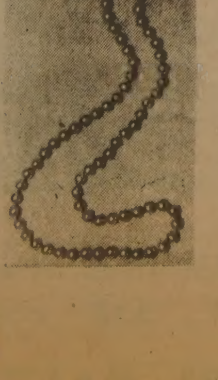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개정식
순두부찌개정식
생선찌개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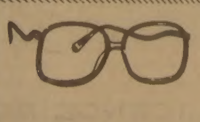

533-2361 구독신청은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농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농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 (B), 286-1548 (R) M3B 1Z3

카나다보석협회 회원
KORYO
확장 이전 1주년 기념 SALE
20% OFF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주소 : 629 BLOOR ST. W. TOR.
전화 : 531-2236(B), 282-2369(R)

스웨덴領海에 또 蘇潛艦

潛艦좌초로 兩國관계 緊張속

스웨덴軍 非常태세에

陸軍총사령관 訪蘇계획도 取消

【스톡홀름29日遞=聯】소련의 위스키 급잠수한 1척이 스웨덴 영해깊숙이 침입했다가 좌초한사건으로 스웨덴과 소련관계가 긴장되고있는 가운데 잠수함좌초현장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않은 스웨덴영해에 소련것으로 믿어지는 또 한척의 잠수함이 29일 출현했다고 스웨덴국방성이 밝혔다.

국방성의 한 대변인은 이 국적불명의 잠수함이 출현한 지점을 정확히 말할수는 없으나 12마일의 영해를 약 6마일이상이나 침범했다고 밝히고 스웨덴해군이 이지역에 출동, 잠수함을 추적했으며 이같은사태와 관련하여 스웨덴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말했다.

이 대변인은 스웨덴해군헬리콥터에 의해 잠망경이 발견된 국적불명의 이 잠수함에 항해상의 어떤 곤란이 있었는지는 알수없으나 스웨덴해군은 이 잠수함에 즉각 스웨덴영해에서 떠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동시에 스웨덴국방성은 오는11월로 예정된 레나르트·룽육군총사령관의 소련공식방문을『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스웨덴당국은 구조선과 예인선을동원, 좌초한 소련잠수함의 인양채비를 갖추고있으나 소련측의 구조작업참여요청은 거부했다.

토르비외른·팔엘딘 스웨덴수상은 스웨덴이 소련잠수함의 스웨덴영해내에서 임무에 관한 소련측의 해명을기다리고있다면서 좌초한 소련잠수함은 소련아닌 스웨덴당국에 의해 구조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軍事訓練지켜보는 蘇잠수함艦長 스웨덴의 발틱해연안 해군기지부근에 출현한 聯蘇잠수함의함장 구신대령이 스웨덴軍의 기동훈련광경을 지켜보고있다. 【칼스크로나(스웨덴) 29日UPI=聯】

좌초潛艦引揚위한 蘇선박 파견

울스텐外相, 단호히 拒否

【스톡홀름29日AP=聯】소련의 위스키급非核잠수함 1척이 27일 외국선박들의 접근이 금지돼있는 스웨덴의 해군기지 수역에 침입했다가 좌초한 사건은 스웨덴과 소련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고 스톡홀름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울스텐외상은 스톡홀름주재 소련대사 미하일·자코브레프에게 전달한 항의각서에서『소련잠수함이 스웨덴 군사지대에 침입했다』고 항의하면서 좌초한 잠수함을 인양하기위한 소련선박의 파견을 허용해달라는 자코브레프대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瑞典측 下船요구에 蘇潛艦함장등 不應

【스톡홀름30日AP=聯】스웨덴군당국은 지난27일 스웨덴영해에서 좌초경위를 신문하기위해 이잠수함의 함장 피오트르·구신에게 잠수함으로부터 하선, 신문에 응할것을 종용해왔으나 구신을비롯한 승무원들은 스웨덴당국의 이같은 요청을거부하고있다.

生命工学時代를 산다 <4>

「遺傳子操作」의 技術혁명·産業化의 충격

大企業들 다투어 巨額投資

가장 활발한分野는 醫藥界

일부선 "人類고민 解決해주나 새苦悶도 준다"

생명공학은 21세기를 기대하게 한다. 그때쯤 생명공학은 본격적인 산업으로 개화할것이기 때문이다. 그기술은 아직 입구에 당도했을 뿐이다. 그러나 실험실·연구실 문턱은 훨씬넘어서있다. 점차 인간의 생활가까이로 밀착하여 오고있다. 생명공학은 일체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될것임에 틀림없다. 우선 제품의 생산공전상식을 깨뜨리게된다. 지금의방식, 전기로 모터를 돌리거나 열과 압력을 넣는 생산공정은 필요없어질것이다.

생산공정은 미생물이 맡는다. 미생물은 재래식 기계에의한 몇십단계의 공정을 단숨에 거치는 화학반응으로 끝내버린다.

에너지源이 미생물이므로 시설규모가 작아진다. 공해도 없다. 간단한생물반응탱크만 있으면 되는것이다. 생명공학을 「제2의산업혁명」이라 지칭함은 이에 연유한다.

현재 가장 활발히 비즈니스로 응용되는 분야는 의약업계이다. 과학자들은 10년후인 1991년 생명공학에 의한 의약품시장을 1백50억달러이상으로 추산한다. 이 시장을 위해 세계유수의 제약회사들은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있다.

各國의 開發현황

경쟁의 첫대상은 인적자원 확보다. 샌프란시스코의 DNA밸리, 보스턴외곽의 DNA루트는 유능한 과학자들을 빨리 끌어당기기위한 지리적 잇점때문에 생겼다.

제약회사뿐만 아니다. 각국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앞다투어 경쟁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의 듀퐁은 뉴잉글랜드의 뉴클리어라는 생명공학회사를 흡수,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금융업계와 공동출자, 버크셔주의 공단에 대규모 생명공학전문회사 셀틱스사를 설립했다.

프랑스는 금년초 국립파스퇴르연구소에 4억달러를 지원했다. 생명공학을 집중연구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의 11대회사인 모에·헤네시는 파리은행과 함께 트란스젠느라는 생명공학회사를 만들었다.

서독의 세계최대 화학회사 훽스트도 미국 하버드대학에 생명공학연구용역비로 3백억원을 출자했다.

미국과 함께 생명공학의 선두 주자는 이웃 일본. 약품 화학 식품을 중심으로 95개회사가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있다.

일본판 DNA계곡은 나가노겐(長野縣) 마쓰모도市(松本)에 형성되어있다. 일본의 프로레슬러 안토니오·이노끼(猪木)조차도 브라질 밀림속에 안톤하지젤이란 생명공학회사를 만들어놓았다.

장사속 밝은 일본의 무역회사들도 재빨리 생명공학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닛쇼이와이(日商岩井) 마루베니(丸紅)등 종합상사가 생명공학제품과 기술을 세일품목으로 삼고있다.

마루베니는 최근『바이오테크놀로지의 노하우스를 파는쪽보다 제품을 파는쪽 기업을 찾아라』라는 지시를 해외지사에 내렸다. 생명공학은 벌써 실험실을넘어 채산성높은 상품으로 화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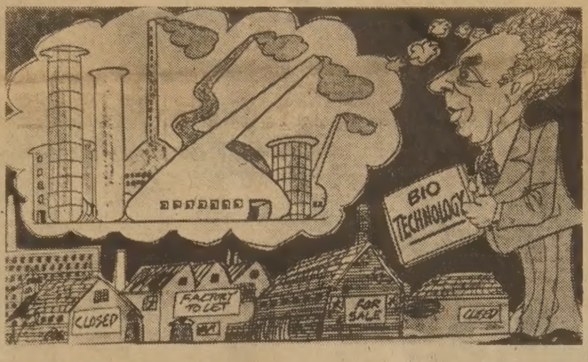
이상과같이 보편의 학문에서 출발해 첨단의 기술과 상품으로연결된 생명공학은 분명 미래의 밝은측면이다. 그럼에도 생명공학은 미래를 즐거움만으로 기다리게 하지않는다. 그것은 생명공학이 최선과 최악의 양면성을 갖고있는 탓이다.

미국의 클리포드·그로브스타인교수(샌디에이고의 캘리포니아大)는 사이언틱·아메리칸誌에 기고한 논문「유전자조작과 인간의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과학의 불확정성을 내포하고있다. 그것은 경탄에서 머무르지않고 공포의대상이 될수도있다. 예를들면, 인위적으로 창조된 병원체에의한 悪疫만연, 생태학적 불균형 초래, 군국주의자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신무기로서의 이용등.

생물체의 진화란 수억년간 무작위적으로 행해진 돌연변이(시행착오)의 良質的 선택이다. 유전인자조작은 수억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시행착오를 한순간에 처리함으로써 선과 악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한다.

유전인자조작은 인류의 고민을해결할수있으면서도 한편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는 이율배반성을 갖는다. 기아, 자원고갈, 오염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한편 또다시 인간이 풀기어려운 숙제를 남긴다〉 【李鍾九기자】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영국 「세균의 혁명」으로 재래식공장들이 문을닫고 생명공학에 눈독을 들이는 현상을 풍자한 만화. 【파이낸셜·타임즈紙】

사우디平和案 지지

헤이그 "PLO 協商참여할수도"

【워싱턴30日外電=聯】헤이그 미국무장관은 美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사우디아라비아판매결정은앞으로 있을 중동평화협상에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참여시키는 문제와관련이 있었다고, 29일 말했다。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가진 한기자회견에서 지난28일 상원이 AWACS의 對사우디판매를 승인한것은 최근 카터및 포드前 대통령들이 권고한것과같이 중동평화협상에 PLO를 참여시키기 위한 한단계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고 간접적으로『그렇다』고 대답했다。

헤이그장관은 레바논 분쟁해결을 위한 평화노력에사우디가 적극참여하기를 미국이 희망하고있기때문에 AWACS판매는 캠프데이비드평화협상과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이그는 PLO와 대화하라는 제의는 PLO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기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는 또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파드 사우디황태자의 제안은 중동평화협상의 바탕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아軍 철수要求 차드政府

【엔자메나(차드)30日AP=聯】차드정부는 리비아에 지난해 12월 정부요청으로차드에 주둔해온 리비아군을철수해줄것을 30일 공식요청했다。

29일밤 각료회의 개최후에 나온 정부성명은『수도 엔자메나와 수도남쪽 3백㎞지점인 차리·바귀르미縣에 진주해있는 리비아군은 전원 즉각철수해야한다』고밝혔다。

리비아군은 지난해 12월남부인접국인 차드에 반군을진압하기위한 구쿠니·우에데이 차드과도정부 대통령 요청으로 진주해왔다。

이 성명은 汎아프리카평화유지군과 통합국가군(ANI)이 리비아군이 장악하고있던 지역을 인계받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駐埃경보기 電擊철수

美 作戰·訓鍊임무 完了결정

【워싱턴29日AP=聯】레이건미행정부는 고 안와르·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후의 중동정세와 관련, 불과2주전 이집트에 파견했던 2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이달말 전격적으로 철수할것이라고 29일한미국무성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파견된 AWACS기의 이집트배치가『잠정적인조치』였으며 이는 분명히 고사다트대통령서거후 이집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미행정부가 이집트정부와 협의한 끝에 AWACS기들이 이집트에서의 작전및 훈련임무를 모두 마쳤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달철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쇠 7개삼킨 사냥개 수의사 리언·스트리걸씨와그의간호원이 래스컴이라는 1년생 사냥개의 배속에서수술로 꺼집어낸 금속제 열쇠를 내보이고있다. 이사냥개는 주인집에서 열쇠를 갖고 놀다가 7개를차례로 먹어치웠다고。【카본데일(美일리노이州) 29日AP特約=聯】

美·中共, 蘇에 共同대응

레이건·黃華회담 兩國관계 強化다짐

【워싱턴29日AP·UPI=聯】레이건 미 대통령과 중공외상 黃華는 29일 백악관에서 40분동안 회담, 미중공 관계강화및 소련위협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등 주요국제문제에 합의하는 한편 중공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미대만관계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黃華의 이날 회담은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黃華가 미지도자들과『집중적인 협의』를위해 이틀동안 워싱턴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黃華는 이에앞서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중심으로한 美中共관계를 중점 논의했다。

데이비드·거겐 백악관 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과 黃華가『우호적이며 정중한 분위기』속에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美國과 中共의 관계강화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백악관회담에서 미 대만관계가 논의됐음을 확인했으나 이문제에 관해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이에앞서 열린 헤이그장관과 黃華의 회담에서는 대만 관계문제가 중점 논의된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회담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엔事務총장 후보지명投票

11월3일로 延期

【유엔本部29日外電=聯】차기 유엔사무총장지명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있는 유엔안보리는 29일 새사무총장지명투표를 오는 11월3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과28일 3선을 노리는 쿠르트·발트하임 현사무총장과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추대한 살림·아메르·살림 탄자니아외상에 대해 모두6차례의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나 새총장지명에 실패했다。

가톨릭도 離婚허용

教皇廳, 새法案승인

【바티칸시티28日UPI=聯】로마교황청 72人 주교위원회는 28일 세계교회법 가운데 그동안 금지해오던 이혼조건들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안을 승인,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가톨릭교도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이혼을 금지해오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혼인생활의 결격사유가 인정될때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새교회법안을 8일간의 격렬한 토의끝에 이날 승인한 것이다。

日에 安保税요구

美 닐下院議員、決議案준비

【東京30日=聯】미상원의 미일안보조약 개정론에 이어 이번에는 미하원이 일본에 2백억달러의 안전보장세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께이(産經)신문은 30일 워싱턴발로 스티븐·닐하원의원(民主·노드캐롤라이나州)이『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GNP의 2%에 해당하는 2백억달러의 안보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리비아 傭兵모집에 CIA 私書函利用

【뉴욕29日AP=聯】워싱턴의 미중앙정보국(CIA)사서함이 리비아군훈련을 위해 미국인용병들을 모집하는데 이용되었다고 미국A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메아리

밀을수 있는 식품, 편안한 잠자리—。이것은 인간의 기본욕구다。이러한 생활의 필수조건이 유해식품과 연탄가스로 위협을 받고 있는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배부르게 먹는것도 중요하나 마음 놓고 먹을수 있어야 한다。얼마전 보사부당국은 가정식탁의 기본식품인 콩나물과 두부를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밝혔다。콩나물재배업소와 두부공장을 조사한 끝에 식생활에 청신호를 보낸것이다。농약콩나물과 횟가루두부의 쓴맛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발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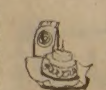
식품의 유해성은 바로 致癌위협의 경고다。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작년 한햇동안의 성인병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그 결과 놀랍게도 전체인구의 8·5%가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며 이중6·8%는 여러 악성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좀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인구1만명에 6백80명꼴로 암환자가 있는 셈이다。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주목할것은 공해로 인한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를 꼽을수 있다。

「암의 공포」에서 벗어 나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방이 王道다。지난여름 일본에서 열린 국제암예방회의는 30%의 예방가능성을 제시했다。그 절대적인 조건으로 음식물에 주의하고 담배를 끊을것을 권고하고 있다。그다음이 위생향상이다。

식품공학의 발달로 방부제、감미료、몽고제등 3백여종의 식품첨가물이 양산된다。여기에「有害의 公氏」이 도사리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安全食品



몇몇 이름난 제과점의 포장용기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또한번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어린이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거듭 위협을 느끼게 된다。어느 암연구가는 식생활과 특히 연관이 많은 위암의 발생소지가 15살 이전에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의 기호식품인 빵이나 과자 자체는 害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담은 물질이 유해하다면 그 위험을 가볍게 보아 넘길수 없다。암을 정복하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것을 확산시킬 유해상품이 나와서는 결코 안되겠다。

유해식품은 국민건강의 公敵이다。식품위생은 단속보다 양식과 양심이 앞서며「생활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美, 人蔘재배 經濟性연구

藥效등 多角的 가치分析

동양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온 인삼이 경제성작물로서 미국에서 재배될수 있는지의 여부가 연구되고있다。

美노드캐롤라이나州 헨더슨郡에있는 고산원예작물연구소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원예재배지에서 수천달러상당의 인삼을재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삼의『노다지』원예작물로서 재배할 가치가있는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인삼연구계획의 책임자이며 노드캐롤라이나주립대학의 원예학교수인 롬·콘슬러박사는『인삼재배에 관해 많은 문의를 받고있으나 모르는점이 많아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고있다』면서 인삼이『노드캐롤라이나지역 농민들에게 돈벌이를시켜줄 작물임에는 틀림없을것』이라고 말했다。【밀즈버리(美)=AP】

海外토픽

超미니自動車 개발

★日, 50cc짜리 1人乘

일본의 주요 자동차생산업체인 스즈끼자동차회사는 배기량이 불과 50cc인『초미니』자동차 개발에 성공, 30일 첫선을 보였다고발표。

이회사대변인은 길이1.9m 폭1.18m 무게1백45kg인 이 1인승 자동차가 50km주행에 휘발유1갤런밖에 들지않는다고 밝히고 30일개막된 81년도 도오꾜자동차쇼에 출품, 선을 보였다고 말했다。【東京AP=聯】

中共人口 9억8천

★세계人口의 22%차지

中共인구는 80년말현재 9억8천2백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臺灣을 포함하면 10억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있다고 中共관영北京방송이 지난27일 공식보도했다。【서울=聯】

美유니버설 映畵社 비틀즈映畵를 製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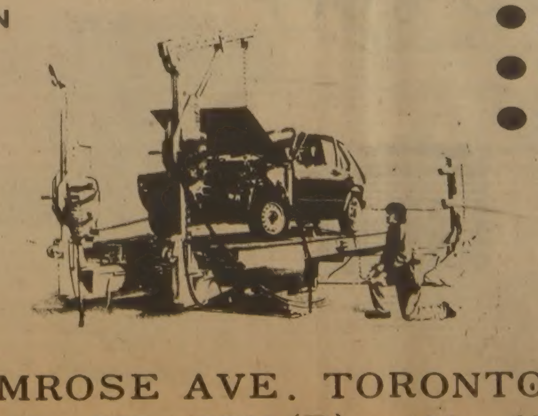
★…미 유니버설영화사는 비틀즈영화「A hard day's night」의 신판을 돌비시스팀 사운드 트랙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이 영화는 지난64년 월터·센슨이 처음 제작하여 아카데미상 2개부문 수상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었는데 비틀즈는 이영화로해서 일약국제적인 명성을 얻게되었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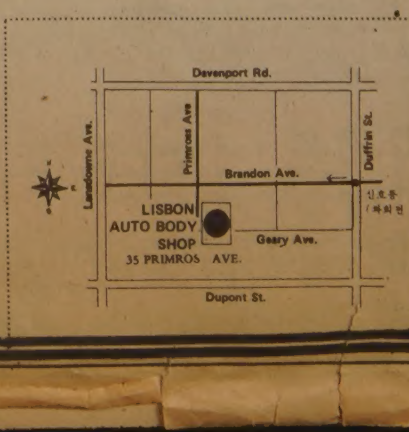
개업특별봉사

* A. CLASS LICENCE BODY MAN
* A. CLASS LICENCE PAINTER
* GUARANTEE WORKMAN SHIP
* 사고후 보험처리
* OVEN BAKED FINISH
* COMPLETE BODY WORK
* TOWING써비스
* 수리중 차대여



●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BODY

LISBON AUTO COLLISION LTD.

사할린 抑留동포 歸還문제
日政府 蘇와 公式협의할듯
日辯護人協 "소노다外相 確約받았다"밝혀

【大邱=聯】日本정부가 최근 蘇聯정부를 상대로 사할린억류 韓國人들의 귀환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협의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日本정부를 상대로 도오꾜(東京) 지방법원에서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청구소송의 변론을 맡고있는 日本변호인연합회(회장 宮田光雄)대표단 7명이 지난7일 소노다·스나오 日本외상을 방문, 소노다 외상으로부터 「한국인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蘇聯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같은 내용을 29일 大邱 中蘇이산가족회 회장 李斗勳씨에게 편지로 알려옴으로써 밝혀졌다.

이편지에 따르면 이들 변호인단은 소노다외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억류한국인들에 대한 제1차 실태보고서를 제출한후 ▲日本정부가 사할린에 있는 한국인 귀환희망자의 실태를 정밀조사 이들에게 日本입국을 허락해줄것과 ▲억류한국인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蘇聯정부에 공식적인 교섭을 벌여줄것등을 요구했으며 소노다외상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것.

현재 사할린에는 日帝때강제징용됐던 한국인 3천5백63명이 생존해있다.

農産物價 豫示制바라
작물品種·數量추정못해 增產 의욕감퇴

【金泉=聯】벼, 보리등 정부가 매입하는 각종 농산물의 가격예시제 실시를 바라는농민들이 높아지고있다.

올해 추곡수매상용알곡 29일 현재 농민들은 벼는 물론 보리, 담배, 양파, 누에고치등 각종 농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가 실시되지않아 재배작물의 품종과 수량을 결정짓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히 가격예시제를 실시해줄것을 요청하고있다.

농민들은 올해 양파의 경우 수확이후에 수매가격이발표되어 농민들이 계약재배한 양파도 내놓지 않을 움직이며 보리농사도 같은 이유로 파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량 증산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押收物 물의없도록
署長 직접點檢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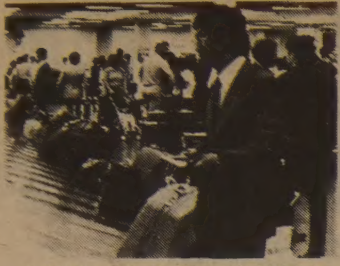
【龜尾=聯】慶北도경은 30일 각종사건 수사에 따른 압수품 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겨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일선경찰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도경은 이지시에서 범죄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필요한 물품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받을때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압수 보관 관리하고 서장이나 수사간부가 압수물의 처리나 보관상태를 직접점검토록 했다.

도경은 또 압수품 목록작성에서 품목을 빠뜨리지 않도록하고 보관창고에는 사건명 피의자이름 순위번호를적은 표찰을 달아 진열토록했다.

◇양체 진열　경기도 平澤읍내 모음식점 개업에 몰려든 축하화환. 무려 47개나돼 간선도로변까지. 진열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松炭=聯】

空港도착 手荷物 굼벵이걸음
乘客들 짐찾느라 1시간이상허비



◇비행기서 내린 수하물이 입국 검사장까지 나오는시간이 너무오래걸려 여행객들이 비행기에서 나온후 1시간이상씩 기다리는 불편을 겪기도한다.

空港로비

○…金浦공항 입국검사장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짐을 기다리느라 40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불편은 비행기에서 내린 수하물을 다시 X레이로 체크하면서 돈베이어벨트를 통해 입국검사장으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KAL 703편등 대형여객기가 도착할 경우 6백여개의 수하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어떤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뒤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자기짐을 찾게돼, 세관검사까지 받다 보면 東京~서울간의 비행시간만큼이나 허비해야한다.

도착수하물을 이처럼 X레이투시과정을 거치게하는 것은 무기반입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나, 아직까지 별로 적발실적을 올리지 못한데다 세관검사가 자세하기때문에 결국 승객에게는 중복검사의 부담만 주는 셈이다.

중복檢査의 負擔도
原則에얽매인 國內線 保安검사에짜증
缺航잦은대한航空…外國귀빈來韓늦어

○…濟州공항의 국내선 승객에대한 보안검사가 金浦공항에 비해 너무 딱딱하다는 불평이 높다. 검사직원이 원칙에만 지나치게 얽매어 기내휴대품반입에 융통성이 전혀 없고, 검사직원의 태도가 여행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10월중순 濟州를 다녀온 李모씨(44)는 서류가방에든 접시가 문제가 되어 다시 수하물수속을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겪어야 했다는것. 李씨는 『안전운항과 접시가 무슨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마디.

이같은 보안검사에 대한 불평은 濟州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흔히 듣게 마련인데 담당관서로서는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보안검사자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고 어떤때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특히 검사직원의 말씨나 인상이 여행객의 기분에 주는 영향은 크다.

보안검사직원도 하루 종일 남의 몸을 뒤지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으나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외지인들에게 관광濟州의 이미지를 잡치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만 할것 같다.

○…비동맹외교강화 방안으로 외무부의 초청을받고 내한한 아프리카의 니제르共和國 다우다·디올라 외상일행은 대한항공의 결항때문에 일정이 이틀이나 줄어들었다.

디올라외상은 유엔총회에 참석했다가 외무부의 초청을 받고 27일 아침 서울에 도착하는 KAL 007편을 탈 예정이었는데 고장으로 결항되는바람에 뉴욕에서 LA까지 건너와 다시 KAL 001편을 타고 28일 하오 늦게야 金浦에 내리게된것. 【首】

畵家 해외진출 부쩍늘었다
파리에만 60여명
佛·美·日·유럽등 6월에만 37명出國

○……海外로 나가는 美術人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만나는 미술인들마다 해외여행에 관한 화제가 꽃을 피운다. 지난 6월 한달 동안만 해도 37명의 화가(한국미술협회집계)가 프랑스, 일본, 미국, 유럽등지로 出國했다. 이들의 여행목적은 보통 해외에서의 전시회개최, 국제展참가, 해외미술계시찰등으로 요약할 수있다. 이와같은 미술인들의 대거 해외진출은 건국후 처음있는일이며, 해외현지에서의 활약 또한 괄목할만해 「미술계의 경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파리는 전세계의 화가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거리에서 화구를 펴놓고 그림을 그리는 여행자들을 얼마든지 볼수있다. 최근 한국화가들도 활발하게 파리화단에 진출, 여러가지 전시회·회화제에서 실력을 과시하고있다.

畵壇

10여년 전만 해도 화가들이 파리에 간다는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것」만큼이나 어려운 「행운」이었다. 극히 소수의 미술인들만이 이 행운을 누렸고, 대다수의 미술인들에게 이들은 선망의 적이 되었다. 특히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돌아온 화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적이 인정돼 취직, 승진, 화단에서의 위치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체재기간이 짧든 파리를 다녀온 화가라면 일반인들도 「화가다운 화가」로 인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들어 해외에서의 화가 초청이 증가되고, 작품전개최에 따른 출국미술인들이 많아지자 이제는 미술인들대부분이 해외여행을 어렵지 않은 일로 생각하게끔 되었다. 누구든 쉽게나가서 견문을넓히고 국제무대에서 숨쉴수있다는 자신을 얻게된것이다. 각종 해외전에서 한국작가들이 잇달아 수상하는등 좋은성과를 올렸다는점도 국내미술인들을 고무시키는 요소가 되고있다.

각종 展示會참관… 미술계 시찰도
우물안 개구리 벗어나
국제 무대서 見聞넓혀

최근 프랑스에서돌아온 서양화가 吳承潤씨는 『화가들의 해외여행은 더 권장되고 더 문호가 개방돼야한다.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국제적인 작가를 배출시키기위해서 화가들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吳씨에 의하면 현재 파리에는 약 60명정도의 한국작가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미술수업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숫자는 일본인미술가2천5백여명이 현재 파리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서는 아주 빈약한 숫자이다. 2천5백여명의 일본인 미술인들은 파리에서 자신들만의 미술단체를 구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吳씨는 전했다.

지난6월 在佛한국인 화가들도 韓默, 李恒星, 孫秀光씨등이 중심이돼 「在佛한국인화가회」를 조직했다. 회원은 재불한국작가들 거의 망라한 57명. 이들은 앞으로 고국화단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유럽 각지역에서의 순회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화가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진것은 퍽다행한 일이다. 국내에서만 권위를 내세우고 관록을 자랑할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국제적인평가를 받는것이 우리 미술계 발전을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서양화가 洪國鉉씨는 말했다. 화가들의 해외진출은 많을수록 좋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붐을 이루고있는 미술인들의 해외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미술인들도 없지않다. 지난해 파리에서 귀국한 서양화가 K씨는 『마치 변두리 구멍가게와 같은 화랑에서, 관객도 없는 개인전이라는것을 열고있는 한국화가들을 보았다.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는 실적을 이력서에 써넣기 위해 한달간 머물다 간 사람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외진출이라고 할수 있다. 또 프랑스전역에는 수백개가 넘는 미술제가 있는데 시골에서 열리는 이름도 전통도 없는 그룹전에 참가하러 오는 우리나라 화가들도 있어 꼭 안타까왔다』고 체불당시를 회고했다.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미술인들은 다음과같다.(無順)

▲프랑스=한 묵 이항성 손수광 최봉현 여 운 이왈종 김인환 최태선 안병석 최대섭 하인두 추연근 유하상 박경호 박만우 김교만 박현규 이호기 성창덕 이혜종 김종하 김창연 강청완 백영수 이성자 손동진 이육록 장 완 전상수 박기태 이필언 백수남 이승입 김 선 강길원 서양순 한봉덕 이연수 황용엽 정상화 정찬승 정윤정 정문규 권영우 구자승 심죽자 윤영자 이마동 박정길 도문희 조돈영 이반

▲일 본=박숙희 이우환 이진섭 유충희 심문섭 문곤 이묘춘 박경숙 김창억 전영화 임완규 임송희 하태진 김원세 김양욱

▲미 국=김태호 오광수 송수남 한승재 조희도 황규백 이혜선

▲아프리카=김기창 박광진 【李盛夫기자】

"TV가 건강 過信하게 만든다"
美서 異色연구보고서 지적
醫術의 큰신뢰감 逆効果
飮酒등 無節制 두드러져

최근 우리나라에 TV에 건강을 다루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부쩍 늘어났다. 드라마「소망」을 비롯하여 각종 토크쇼에서도 건강문제를 많이 다루고있다. 그만큼 건강에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나치다보면 역효과도 나타나게 마련.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TV는 건강을과신하게 만든다』는 이색연구보고서가 나와 경종을 울리고있다.

美펜실베이니아대학의안네버그 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식사나 음주, 또는 운동등에 대해 조심을 하지 않고 안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다는것. TV가 시청자들에게 의술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의사들이 건강에관해 무슨일이건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오늘만 무사하면 된다는 풍조를 조장하게 되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TV가 상투적으로 전지전능한 의사상을 부각시켜왔으며 의술을 비현실적인 확신과 결부시키게 됨으로써 건강을 돌보지 않는 생활태도를 굳혀주게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조지·거브너는 『모든 프로그램이 건강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데 이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보고서는 TV프로가 실생활에서 보는것보다 5배나 많은 의사와 간호원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크프로들이 「미국에서 가장많은 건강상담의 소스」가 되고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출연자들이 마구 먹고 마셔도 건강하고 사고를 당해도 멀쩡하며 모두 날씬한 사람들만을 보여주게 되어 건강을 너무 과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教育공로자表彰式
權赫彩교사등 有功者에 副賞도

제29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이 30일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李奎浩문교부장관 韓柄寀국회문공위원장 具本錫서울시교육감과 수상자 가족친지등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표창식에서는교육발전에 공이 큰 權赫彩교사(57·서울경희국교)등 20명이 특별공로상을, 35년이상 교직에 몸바쳐온 高彰善교사(63·서울영중국교)등 1천1백73명이 연공상, 사회인으로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姜貞愛씨(71·大邱수성구범어동805의27)등 11명이 독지상, 그리고 교직단체 활동에 모범이된 강원도東海市교육회(회장 崔갑순)등 12개단체가 공로단체상을 각각받았다.

연공상수상자 전원에게는 全斗煥 대통령이 보낸 벼루 1세트씩이 함께 수여됐으며 특공상과 독지상 수상자에게는 대한교련으로부터 부상으로 순금배지(3돈쭝)와 칠보함이 각각 주어졌다.

특별공로상·독지상수상자 및 시도별 연공상수상자수는 다음과 같다.

◇특별공로상(20명)

▲權赫彩(57·서울경희국교교사)▲申鉉範(57·서울장안중교감)▲金成培(63·동국대교수)▲閔영천(56·金山성심여상고교장)▲金유한(41·慶北사대부중교사)▲金현섭(47·仁川신흥국교교감)▲임배인(52·淸津선재국교교장)▲朴찬웅(47·水原농림고교주임교사)▲金용해(59·梨川성수고교교장)▲金용주(47·忠州공업전문대학장)▲閔창기(47·忠南大이과대부교수)▲羅종만(44·金堤중앙국교교사)▲張인석(51·求禮북국민교교장)▲朴명심(57·長興장환국교교감)▲尹옥현(41·康津농교고주임교사)▲金영석(61·釜山장천국교교장)▲徐용호(45·慶北체육고주임교사)▲洪상곤(63·府山중앙국교교장)▲정원수(60·晋州기계공고교장)▲金원하(56·西歸西국교교장)

◇독지상(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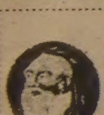
[illegible]

◇시도별 연공상수상자수

[illegible]

◇눈길끈 朝鮮朝상여　李忠武公의 閑山대첩 전승을 기리는 제3백89주년 기념제전을 맞아 三道水軍統制使 本營이었던 洗兵館뜰에서 문화재전수생들이 무형문화재인 統營오광대를 공연하면서 忠武고유의 李朝때 상여가 등장,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忠武=聯】

歷史의 名言



儒敎의 鼻祖. 魯나라 曲阜서 남. 성은孔, 이름은丘, 字는 仲尼. 그의 學派를 儒家라함. 仁을 最高德으로 삼았다. 弟子들이 그의 言行을 기록한 「論語」는 오랫동안 極東의 사상계를 지배했다.

知者는 물을 즐기고 仁者는 山을 즐긴다

知者는 물을 즐기고 仁者는 山을 즐긴다. 知者는 움직이고 仁者는 조용하다. 知者는 즐기며 仁者는 壽하다. <雍也篇>

× × ×

孔子 <前552~前479>

그의 人格은 가까이서 우러러보면 天上높이 솟았고 鑽仰를품고 意見을 말한즉 세찬 반응을 느낀다. 스승의本體를 잡았다고 느끼는 찰나, 그모습은 사라져 없어진다. 이렇듯 孔子의 人間으로서의 本性은 제자들에게 어떤방법으로 해야며 알기를 허락않는 不可思議한 존재였다. 얼핏보기엔 세상일반의 온후한 君子같은데 자주접하면 할수록 그高遠함에 놀랄따름이며, 그 위에 學問뿐 아니라 世智에도 능해 당시 貴族들이 구비해야했던 藝能을 거의 모두 통달했었다. 요컨대 博大를 극한 人間性, 그것이 孔子의 특질을 이루었다 할수 있다.

平凡한外觀을했으면서 깊이생각해보면, 아무리퍼올려도 모두를 퍼올릴수없는 재미있는 「論語」속의 箴言들은, 이孔子의 博大한 人間性으로부터 자연히 스며나온것에 불과한것이 아닐까.

「論語」가 2천5백년동안이나 많은독자를 사로잡은 매력은 무엇보다도 孔子의 말끝마다에 스며서나온 博大高遠하면서 그리고도 溫厚하며 친하기쉬운 그의人間性때문이라 할수있다.

孔子에 의해 창설된 儒敎라고하는 思想의 승리는 聖典「論語」를 일관해 받치고 있는 祖師孔子의 博大한 人間이 거둔 승리이다.

그에게 있어 人生의 유일최고의 목표였던 仁의實現은 인생의 一大事이며, 仁의 本質이 무엇이냐는 해답은 동시에 그의 학문의 秘義를 이루는것이었으나 그것은 오직 實踐에 있어서만 획득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顔回를 제자가운데 첫째로 꼽은 것이 아니겠는가.

孔子에의해 기초가 주어진 儒敎는 人間性의 信賴위에서며, 그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는것이라 할것이다.

한국일보 詩壇

戀歌
李濬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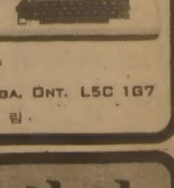
너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나는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아 간다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동안에도
너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가라앉는 것이 두려운 이 순간에도
나는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아 간다
멀어져 감으로써
다시 떠나지 않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너는 멀어져 가고
가라앉아 감으로써
너를 올려보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나는 가라앉아 간다
그리하여 永遠으로 돌아가는 길목
遠近도 없고 浮沈도 없는
그 모퉁이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너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나는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아 간다
조금씩 조금씩
아 조금씩 조금씩.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명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명 림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 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 ~ 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 입)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살아있는 역사 〈執筆·尹致暎〉 윤치영 ㉛

鄭國殷 사건

52년가을 중대한 정보가 내손에 들어왔다. 巨物間諜이 권력의 비호아래 언론계와 政府깊숙이 침투해 활약을 하고있다는 깜짝놀랄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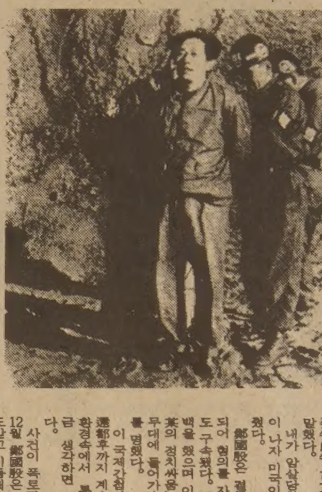
聯合新聞 편집국장인 鄭國殷은8·15해방후 南勞黨중앙특수부소속인물로 언론계에 침투했다. 鄭은 6·25동란전 北韓과 연락하며 간첩행위를 해오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일본으로 도피했다. 鄭은 일본에서聯合新聞駐日특파원행세를 하며 東京구락부를 무대로 국제공산당과 연락을 해오다 정체가 폭로돼 일본경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다시 귀국했다. 이어 朝鮮系로부터 제공된 막대한 공작금을 뿌리며 국회의원등 각계요인들과 접촉, 활약을 하고있다.

鄭은 해방후 南勞黨중앙특수부의 조직하에 國際新聞이란 간판을 내걸고 麗順반란사건의 歪曲보도와 허위선동을 일삼았고 그뒤 軍部와도 接線「국방신문」을 운영하면서 美군사원조상황, 韓國의경제정책, 고급장교들의 동태등을 탐색 보고해왔다.

이비밀정보꾸러미는 그밖에 놀랄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鄭國殷의 사회적지위는 실로 대단했다. 그는 梁又正의원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族靑系의 巨物인 梁又正의원은 당시 釜山景武臺를 드나들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政街에선 「梁又正天下」란 말까지 돌정도였다.

鄭國殷은 당시 국회의원, 국무위원, 景武臺비서실에까지 줄을 대고있었으며 경무관신분증에다 경찰관이 직접 모는 지프와 경비전화까지 갖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5~6명의장관과 관계가 깊다는 말도 떠돌았다.



◇권력의 비호아래 政界와 언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鄭國殷은 국제간첩으로 밝혀져 54년2월 死刑당했다.

국제巨物間諜 言論·政界침투암약

國會서 폭로하자 同僚議員들냉담

그런 鄭을 조사한다거나 건드리는것은 自殺행위였다. 나는 이 비밀정보서류를 엄밀히 검토한뒤 나와 친한 몇몇의원들과 상의했다. 당시 부의장인 曺奉岩의원도 나에게 『東山, 나중에 이일을 어떻게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자살행위야』하면서 만류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해줘 고맙네만 내가 전책임을지고 폭로하겠네. 이서류가 몇군데 거쳤으나 모두가 쉬쉬하는 모양인데 내가감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情報는 앞서 張澤相국무총리에게 갔었는데 그는 默默不答이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鄭國殷이 張澤相에게 1억얼마를 주었다는 풍문이 나온것도 이때문일것이다.

며칠간을 심사숙고한뒤 나는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일을 폭로키로 결심했다.

8월 어느날 국회에서 나는 이정보를 폭로했다. 나에앞서 李鐘榮의원이 序論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동료의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T신문에서는 내사진까지 싣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국회에서는 이일로 조사위원단을 구성 했는데 사건조사를 한는게 아니라 나를 일면 협박하고 일면 회유시키려 들었다. 국회에서 梁又正派의원들은 나를 공격하는 무자비한 발언을했다.

요새말로 『칭을 맞았다』고 하면가 동조발언을 할만한의원들도 입을 봉했다.

그런뒤 국회부의장실과 釜山 미진호텔의 내사무실엔 사람들이 찾아오고 야단이었다. 美정보책임자들도 찾아왔는데 그들은 나에게『당신의 폭로때문에 우리가 국제 공산당에 대고있던 線이 끊어졌다』며 弄半眞半으로 『손해배상을하라』고 말했다.

내가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자 미국인들이 한동안 보호해줬다.

鄭國殷은 결국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혐의를 자백했다. 梁又正의원도 구속됐다. 그러자 『鄭이 허위자백을 했으며 이 사건은 梁系와 尹某의 정치싸움』이라는 모략이 경무대에 들어가 李대통령은 재조사를 명했다.

이 국제간첩사건은 이듬해 서울還都후까지 계속됐다. 나는 고독한 환경속에서 투쟁을 계속했다. 지금 생각하면 생명을 내건 일이었다.

사건이 폭로된지 1년후인 53년12월 鄭國殷은 軍裁에서 死刑을 언도받고 이듬해 2월 사형이 집행됐다. 梁又正의원은 그당시 7년형을 언도받았었다.

戰時의 피난政局에서 일어났던 이 국제간첩사건은 당시의 政局이 얼마나 문란했었는가를 반증해주는 여실한 증거였다.

鄭國殷, 그는 국제간첩사건으로 사형을 당했지만 언론계의 『才士』라 할정도의 놀라운 筆力과 재주를 지녔던 인간 鄭國殷에 대해선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

鄭國殷사건이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할때 막강했던 族靑系가 肅淸을 당했다. 당시 鄭은 族靑系의 참모로 통했었다. 이를 두고 야당측에서는 내가 族靑系를 숙청하기위한 술책의 일환으로 사건을 폭로했다는 모함까지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나 그후나 난 숱한 政敵의 모함을 받으며 金權과 權力에 맞서 나대로의 길을 걸어왔다.

역사는 반드시 事必歸正인 것이다.

깊은밤 停電이 「死神」부른다

가스排出器도 멈춰 연탄中毒빚어

新寺洞(서울) 深夜 6시간동안停電 가정부·女店員 목숨잃어

한밤중에 6시간동안이나 정전되는바람에 가스배출기가 작동을 중지, 잠자던 2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모두 숨졌다. 이 사고는 평소처럼 가스배출기만 믿고 깊이 잠든사이에 정전이 되자 생긴 사고로 정전이 잦은 지역의 주민중 가스배출기를 설치한 사람들은 예고된 정전시간을 매일 알아두어 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는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문간방 아래 연탄보일러 가스 스며들어

韓電선需用家편의 밤중工事… 주의해야

◇믿을수없는 배출기

잠이 깊이든 심야에정전이닥치면 가스배출기는 멈추어버리고 가스가방안에 가득차게 마련이다。사진은굴뚝속에 설치된 가스배출기。

30일 새벽4시40분께 서울 恩平區新寺洞344의13 金珉石씨(34)집 건넌방에 잠자던 가정부 李鍾玉양(17)과 金씨의 의류가게 점원朴貞女양(20)등 2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져있는것을 金씨의 부인 權軟淑씨(34)가 발견했다.

權씨에 의하면 평소새벽4시30분께면 南大門 대도상가에있는 의류가게에 나가기위해 일어나던 朴양이 일어나지않자 문을열어보니 숨져있었다는것.

金씨집은 문간방아래 지하실에 연탄보일러가 있고2층옥상굴뚝에 가스배출기를 설치해놨는데 이날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鞍山洞전역과 新寺洞일부지역의 전주교체로 인한 심야공사로 정전, 가스배출기가 작동하지않았다.

이지역의 휴전은 27일자일간신문에 공고되었지만 朴양등은 이사실을 모르고 잠자다 변을 당한것.

이같은 유형의 연탄가스중독사고는 통계로 나와있지않지만 가스배출기가 일반가정에 보편화 돼있고 한전측이 수용가의 편의를위해 각종전기공사를 자정이후 심야에하고있어 그동안 적지않게 일어났던것으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앞으로 정전지역에서의 가스중독사고 위험도 한층높아질것으로 보아야한다.

가스배출기는 가스역류현상이 많은 재래식부엌과방에 누출된 가스를밖으로 빼내주고 열효율을 높여 방을 고르게 덥히며 보일러의부식을방지해 수명을 연장케하는등잇점이있어 보급이 확산되고있는 실정.

그러나 가스배출기를 달아도 가스를 모두 빨아내지못하는등 여러가지 제약이있어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즉 배출기의성능이 나쁠경우, 굴뚝에 틈이나있거나 구조가 나쁠경우, 날씨가 아주 추울경우에는 성능이좋은 배출기라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틈을이나 얼음이끼어 가스배출이 힘들어진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연탄가스제거기는 ▲모터가 팬을돌려 가스를강제로빨아올리는 강제배출식 ▲화학제를 연탄에뿌려 일산화탄소를 중화시키는 중화식 ▲촉매제를 이용,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중화시켜 재연소시키는 재연식등 3가지방식의20여개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보편화된것은 강제배출식이다.

가스배출기제작업체에 따르면 가스배출기를 제대로설치했을경우에는 연탄소때생기는 가스의 90%를외부로 빼돌려 사고위험을 거의 없앨수있다는것.

그런데 한전측은 매일10여건의 각종공사로 20~50개동에 대해 휴전안내를 공고하고있는데 수용가의 편의를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전기공사를 자정이후 새벽6시사이에 하고있어 모두가 잠자는이시간이 배출기에 가스중독예방을 의지하고있는 가정으로선 사각시간이 되고있다.

현재 서울市의 난방연료별 가구현황을보면 총1백80만9천3백33가구중 10·3%인 18만6천29가구만이 유류를 사용하고 나머지 89·7%인 1백62만3천3백10가구가 연탄을사용하고있으며 연탄사용가구중 70%이상이 가스배출기를 설치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方政俊기자】

◇朴貞女양(20)

◇李鍾玉양(17)

두 遞信공무원 조난

電話가설 답사 德裕山서 눈만나 길잃어

零下10도의 酷寒·강풍속 慘變…殉職·실종

20여년간 외길의 悲運, 오늘 全北遞信廳葬

◇숨진 金大坤계장。

◇실종된 姜秉淳과장。

전북체신청 총무과장 姜秉淳씨(46)와 계획방호계장 金大坤씨(46)등 2명이 해발1천4백50m의 德裕山을 넘다가 악천후로 조난, 金씨는 지난29일하오6시께 산중턱에서 숨진시체로 발견됐고 姜씨는 실종됐으나 사망한것으로보인다.

체신부에의하면 순직한 金씨등은 지난27일 전북茂朱지방우체국보안점검과 내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릴 茂朱九千洞야영장에 자동전화 설치를위한 현지답사를 하려고 茂朱로출장, 雪川우체국 白蓮寺전신전화취급소를 거쳐 28일 상오 8시15분께 茂朱郡安城面 新安城우체국으로 가기위해 德裕山을 넘어가다 조난을 당했다.

全北체신청은 이들이 29일출근을 하지않자 출장행적을 추적한결과 사고를 당한것으로 보고 구조반을 편성, 이날하오1시께 德裕山 해발1천2백m지점에서 숨진 金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金씨등이 德裕山정상을넘어 安城쪽으로 하산할때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는 바람에 길을잃고 영하10도의 강추위속에서 산속을 헤매다 변을당한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29일밤 조난현장에도착한 吳明체신부차관은 예비군 경찰 전북체신청직원등2백50명으로 편성된 수색작업반을 지휘, 실종된 姜씨를 찾고있다.

숨진 金씨는 체신공무원경력 24년에 근정포장을 받은 모범공무원으로 全州市老松洞2街392의18 집에는 노부모와 부인 俞在英씨(45)와 1남2녀를 두고있으며 실종된 姜씨도 22년 근속에 근정포장을 받았는데 全州市慶園洞2街24의8 자택에는 부인 張恩淑씨가 뜬눈으로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있다.

金씨의 장례는 31일 전북체신청장으로 치러진다.

三友트레이딩 誠金

三友트레이딩 俞炳彥사장은 30일 순직한 체신공무원의 유족들에게 전해달라고성금 2백만원을 체신부에 전했다.

犯行쇠망치 찾아내

釜山 主婦피살 "40세가량 남자가 사갔다"

【釜山=聯】속보=40대 가정주부 살인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30일 범인이 범행때 사용한 쇠망치의 출처를 찾아내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쇠망치는 숨진 金萬愛여인(45)집에서 1백여m 떨어진 영주건재상(中區영주1동·주인 朴大之)에서 사건당일인27일 하오6시30분께 40세가량의 남자가 사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朴씨에 따르면 이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후리후리한키의 40세가량된 남자가 점포에 찾아와『가정집에서 사용할 못빼는 망치를 달라』고해서 5백원짜리인 쇠망치를 팔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남자를 유력한용의자로 보고 뒤쫓고 있다.

경찰은 또 金여인으로부터 6백만원을 빌어쓰고 아직갚지않은 李모씨(48)와 2년전 이집에 세든 전과자 徐모씨(40)의 소재수사도 아울러 펴고있다.

不法체류 外國人에 日、永住權부여키로

【東京29日=聯】일본정부는 오는82년1월부터 발효되는 새이민법과 관련, 국내의 불법장기체류자로서 일본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추방대상외국인들에 대해 특별거주허가를 내주기로했다고 법무성이 29일 발표했다.

법무성은 이같은 조치가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완화에 따른『사면의 일종』이라고 말했는데 이민법은 2차대전 종전이후 혹은 그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외국인과 1952년4월28일 이전에 출생한 외국인자녀에 대해 무조건 日本영주권을 부여토록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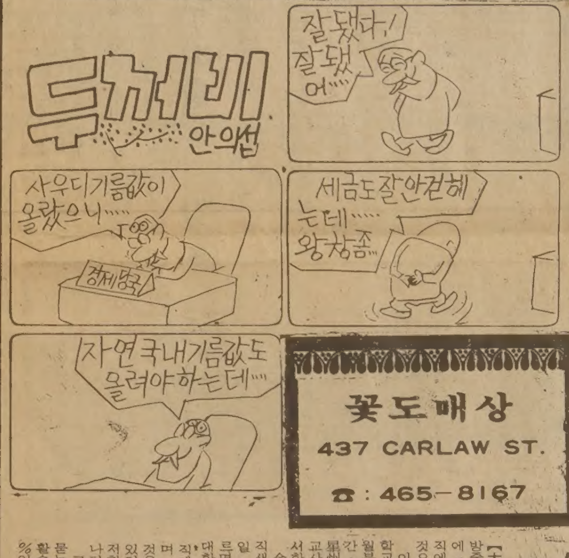
법무성관리들은 이개정 민법으로 대부분이 한국인과 대만인들인 약28만명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될것으로 알려졌다.

理工系대학생 1백50명 해외建設현장研修

대학생 1백50명이 올겨울 방학동안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다.

새마을중앙본부는 오는11월10일까지 전국각대학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자공학등 2학년학생 1백50명을선발, 1백명은 사우디등 중동지역에, 50명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건설현장에 12월20일부터 1개월간 파견, 실습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학자금도 벌어쓸수있도록 하기로했다.

이들해외파견대학생들의 항공료를 비롯한 체재경비는 수탁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실습이 끝나면 2백~3백달러의 근로수당도 지급받게된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使命感낮고 不滿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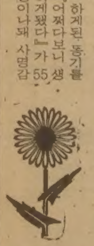
慶北·大邱 중등교사 8百여명 調査

【大邱=聯】大邱와 경북지방중등교사들중 태반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약하고 현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慶北永川중학교 金鍾鎬교사가 지난해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大邱시와慶山·永川·靑松·星州군등 5개 시군의 중등교사8백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밝혀졌다.

金교사는 이조사결과를 교직생활연구보고서에 수록28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고 현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서의욕이 낮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자세가 돼있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에 저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것.

교직생활을 하게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어쩌다보니 생활수단으로 하게됐다』가 55%인 4백64명이나돼 사명감이 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직에 대하여 만족을느끼지못한다』가 53·8%인4백55명이나되는데 비해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는99명밖에 안됐다.



公認鑑定士시험

재무부는 30일 81년도 公認鑑定士시험 최종합격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3백31명이 응시한 이번2차시험에서 최고득점자는林富澤씨(農協大)와 金義昌씨(圓光大)로 평균 66·38점이었다. 합격자명단은다음과같다.

▲李建世▲金鎭祐▲金鍾福▲金敏雄▲姜胡中▲盧泰仲▲孫重玖▲高敏植▲金元浩▲申榮海▲李秉寅▲曹相文▲崔洛道▲金日洙▲金元泰▲朴奎植▲林富澤▲林康洙▲鄭均▲崔在煥▲李載弼▲金義昌

제1회 航空의날 기념식

世宗會館서、有功者38명 褒賞

제1회 항공의날 기념식이 30일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尹子重교통부장관과 黃寅性국회교체분과위원장과 항공관계자등 7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趙重勳 大韓航空사장에게 수교훈장 光化章, 전대한국민항공사대표 故愼鏞頊씨에게 동탑산업훈장, 대한항공소속 무사고비행 2만시간돌파 조종사金良燮、高永一씨에게 석탑산업훈장이 수여됐고 아세아항공대표 吳逸泳씨등 38명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등이 수여됐다.

落島 모범어린이들 비행기 태워주기도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제1회 항공의날을 경축하기위해 비행기 2대를 동원, 어린이 3백40명을 무료로탑승시켜 전국상공을 구경시켰다.

이날하오2시 金浦에서 출발한 에어버스에는 시교위가 추천한 모범어린이 2백30명이 탑승, 安養-平澤-群山-釜山-大邱상공을 거쳐서울까지 비행했다.

낙도어린이 1백10명도 光州에서 보잉727기에 타고 南海의 다도해-濟州-大邱-群山을 한바퀴도는 비행기여행을 즐겼다.

海松어린이집開院

李順子여사 참석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30일하오 서울冠岳區新林7洞의 海松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 개원테이프를 끊고 유아들에게 원아복등을 선물했다.

裁判部 현장檢證

尹갑부 被殺사건

서울龍山區元曉路 尹景花씨(72) 일가족 피살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30일 상오10시 尹씨집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주재로 열렸다.

이날 검증에는 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와 金炳宰、李亨夏판사등 재판부와 검찰측에서 서울지검 형사3부 金基睍부장검사、鄭相明검사、高淑鍾피고인의 변호인 吳應澤、金炯準변호사、龍山경찰서수사팀등이 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尹씨집의 1·2층방구조를 상세히 살펴보면서 공소장 내용에의한 범행경위, 시체가 발견된 위치, 신고경위등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측 주장을 청취하는 한편 ▲高피고인이 나일론 끈을 갖고왔다는 뒷마당 ▲범행후 혈흔을 씻었다는 주방벽의 스위치▲尹씨가 숨지기 직전 기어나와 쓰러졌다는계단난간 ▲범행후 사건을 경찰에신고하기전 高피고인이 옆집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펴보았다는 주방창문등에 대해 검증을 중점적으로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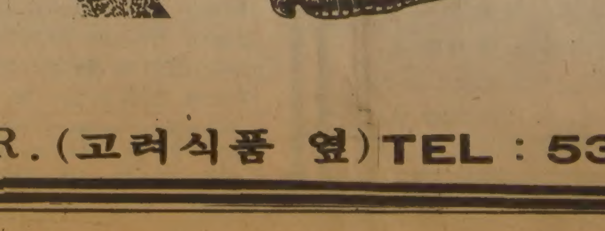
이날 검증에는 高피고인도 서울구치소 앰뷸런스에 실려왔으나 高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자체를 부인하고있기때문에 현장에서의 범행재연은 없었고 대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검증이 끝난후 되돌아갔다.

빅세븐선물센타 (구아세아 선물센타)

—GOOD NEWS— 〈기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동안 교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날로 성장해온 아세아선물센타는 금번 위와같이 「빅 세븐 선물센타」로 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중국본토"로부터 직수입한 「각종 한약재」와 한국의 최고급 「인삼」을 교민여러분께 특별대매출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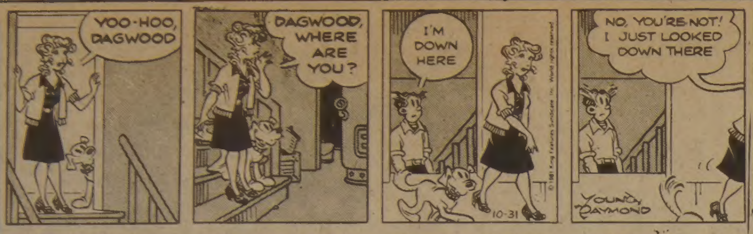
〈중국산 한약〉
- 중국길림 흑룡강녹용 1냥 $59.
- 십전대보탕 1첩 $8.—
- 북경로얄제리 100정(2병) $20.—
- 편자황(진품100%) $290.—
- 우황청심환, 호른환, 웅담, 북경산 위장약등 각종약재, 녹용정



〈밍크및 각종털제품 염가매출〉
●각종 물개가죽 핸드백
●블루·폭스, 레드·폭스, 실버·폭스 목도리및 칼라.
●밍크 숄, 밍크자켙
※이외에도 각종 선물용 구비했음.

678 BLOOR ST. W. TOR.(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대표 김 영 철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連載漫畫



"야호. 대그우드" "여보, 어디 계셔요" "나, 여기 아래 있어" "아네요。거기 안계셔요! 방금 아래를 둘러봤거던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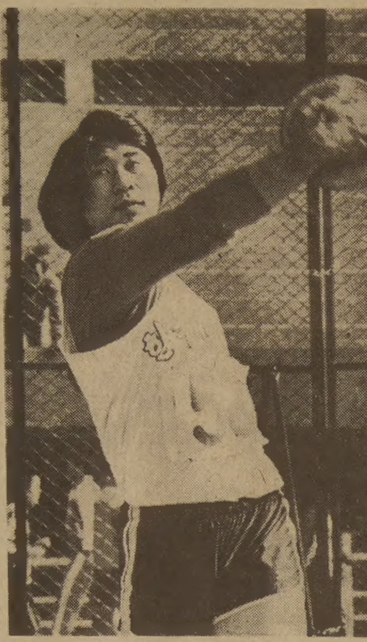
洪淳模 투원반서 韓國新

50m72 自身기록 4개월만에 更新

신예柳光烈 千5百m 우승

大會新 기록보유자 黃奎勳 제치고

全國陸上선수권



◇韓國新의 순간 남자 투원반서 50m72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洪淳模。

제35회 전국남녀육상선수권대회가 30일 서울운동장서 개막, 첫날 투원반의 洪淳模(한국체대)가 한국 신기록을 세워 기염을올렸다。남자 투원반의 일인자인 洪淳模는 이날 50m72를 던져, 자신이 지난6월 釜山서 열린 대학대항 육상대회서 수립한 한국기록50m14를 4개월만에 58cm경신한 50m72 (세계기록71m16)를 기록하여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는 한편 투원반에서 당분간 무너지지않는 洪淳模시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남자 1천5백m서 三星電子의 신예柳光烈은 한국기록보유자 黃奎勳(한국전력)을 제치고 3분52초8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이번 대회서 새로운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柳光烈은 종전대회기록 3분53초F를 0·2초 단축했다。

남자 4백m계주서 成均館大팀은 42초F를 기록, 종전 대회기록 42초6을 0·6초 단축하여 대회신기록을 세웠고 여자1천5백m서 金順花(대성여상)는 4분33초5로 역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남자 1백10m허들서 宋連植(성대)은 14초8(종전14초9)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고, 높이뛰기 한국기록보유자 金容基는 2m10에 머물렀다。남자 단거리서 徐末九의 후계자로 꼽히는 張在根(성대)은 10초7로 1위를 차지했다。

商銀, 승부킥勝

축구선수권 2회전에 進出

商業銀行과 慶熙大가 2회전에 올랐다。商業銀은 30일 효창운동장서 속행된 제36회 전국축구선수권대회 3일째 1회전 경기에서 韓一銀行과 격전끝에 1-1로비겨 승부킥서 4-2로신승, 오는 11월3일 中央大와 2회전을벌이게 되었다。

慶熙大는 전반26분 FW邊一雨가 金大欽의도움으로 결승골을올려 鐵道廳을 1-0으로물리쳐 2회전서 成均館大와 맞서게되었다。

전반 河斗鳳의 정열적인공격에도 득점하지못했던 商業銀은 후반10분 귀중한 한골을넣어 리드를 잡았다。金鍾夥가 미드필드 근처에서 센터링, 韓一銀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있던 金喆洙가 볼을잡자마자 훌륭한 솜씨로 터닝슛을 성공시켜 1-0의리드를잡았다。

商業銀은 후반35분 李南洙가 동료金喆洙의 도움을받아 결정적인 득점찬스를 잡았으나 韓一銀골에리어 오른쪽에서 볼을잡아 머뭇거리는사이 韓一銀수비진에 견제를받아 결정골을성공시키지못했다。찬스를 잃으면 위기가 오는법。商業銀은 결정적인 득점기회를 놓친2분후에 어이없이 코너킥으로 동점골을빼앗기고승부킥으로2회전에오르는 순간가는대결을벌여야했다。

◇제3일전적 ▲1회전

상업은행 1(1-0, 0-1)1 한일은행 (승부킥 4-2)

경희대학 1(1-0, 0-0)0 철도청

排球대표선수단 2元化

五輪대비 長期계획으로

趙錫來대한배구협회장은 오는84년 로스앤젤레스및 88년 서울올림픽에서의 메달획득을 위해 남녀대표선수단을 1·2진으로 구성, 2원화하는 등 장기계획아래 새로운대비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趙회장은 우선 오는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대비키위해 이번 제2회세계선수권서 2연패를차지한 여자및 지난9월 남자선수권서 銅메달을 획득한 남자주니어대표를 중심으로 곧 대표단을 새로 편성할 계획이며 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서는 앞으로 중·고교의 장신유망주를 발굴, 중점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킹스컵서 南北對決

예선B조에 편입

【방콕29日聯合】南北韓축구팀은 오는11월9일 방콕에서 열리는 제14회 킹스컵축구대회에서 B조에 함께 편성, 예선전에서 맞붙게되었다。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대회에는 작년도대회 공동우승팀인 한국과 泰國을 비롯 12개팀이 참가하는데 금년에는 결승전에서 승부가 판가름나지않을경우 공동우승대신에 페널티킥으로 우승을 결정하게된다。

◇예선組편성

▲A조=말레이지아·中共·싱가포르·파키스탄·인도네시아·泰國A

▲B조=한국·北韓·濠洲·印度·폴란드·泰國B

「月刊 野球」창간

국내 야구계에서는 처음 야구 전문지인 「월간 야구」가 창간됐다。

창간호인 월간야구 11월호는 善隣商高의 에이스였던 朴魯俊을 표지사진으로, 그외에 金在博(한국화장품), 崔東原등 스타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후보過程 조종外는 3년복무

空軍장교

국무회의는30일 軍人事法을 고쳐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장교의 진급에 있어 능력이 특히 우수해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 단축, 진급시킬수있는 장교의 범위를 현재의 해당계급 진급인원의 10분의1이내에서 4분의1이내로 확대하도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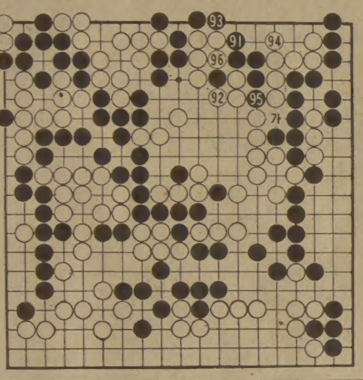
한국일보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9譜 191~196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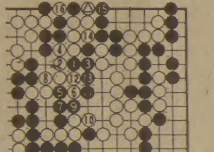
黑(4段) 姜 勳〈1勝〉



이무렵 姜6단은 제한시간을 거의 다 쓰고 나머지 7분, 姜4단쪽은 1시간10분이나 여유가 있었다。따라서 黑은 더욱 필사적인 반항을 시도하는데 白은 무엇보다 복잡한 변화를 읽고 또 읽기에 시간이 부족하다。黑91의 강수에 대해서 姜6단은 93자리를 막으려다가 손을멈칫하고 생각에 잠겼다。이때 마침내 나머지 5분。기록계가 『姜사범님 초를 읽겠읍니다』하고 스톱워치를 손에 들자 이때 정신이 번쩍들더니 『나참』하면서 白92쪽을 막았다。몹시 불만스러운표정이 좀체 가시지 않는다。

국후검토에서는 바로 이白92가 문제거리로 등장했다。92는 강하게 93자리를 막아야했다는 것이다。그러면 참고도의 △표에 대해 黑1이하 白16까지 패가나서 白이 위험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姜6단



순중 白8로 9자리에 연하여 黑으로 하여금 8자리를 끊어서 살게하면 그것으로 白은 쉽사리 이길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姜6단도 실은 참고도를 생각했겠지만, 패가나는 것만을 겁냈을뿐이지 도중에서 순하게 살려주어서 승리를 마무리짓는데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여하간 黑95가 또 강수인데 姜6단은 금싸라기같은 시간을 4분이나 소비하고 白96에 따냈다。그런데 白96으로 「가」자리를 이으면 어찌되나。【一凡】

流星의 賦 〈222〉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⑳

황해감사 한준의 장계는 조정을 공동(恐動)케 했다고 「연려실기술」은 적고있다。다음에 「연려실기술」을 골자로하여 그 부분을 적어본다。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놨다。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물었다。

『도대체 정여립을 어떤 사람으로 아는가』

영의정 유전(柳㙉)은

『신은 그와 별로 가까이 한 적이 없읍니다』

라고 했고, 좌의정 이산해(李山海)도

『그 위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고 우의정 정언신(鄭彦信)은

『신은 오직 그가 글 읽는 사람인줄로만 알았고 그밖엔 아는 것이 없읍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임금은 황해감사가 올린 장계를 상 아래로던지며 호통을 쳤다。

『글 읽는 사람의 소이가 이 모양인가』

그리고는 승지더러 일렀다。

『그 장계를 소리 높여 읽고 그 사람들의 귀를 틔어주라』

장계엔 여립의 죄상이 열거되어 있었다。모두들 목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다。

『어떻게 할텐가』

임금의 하문이 있었다。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보내어 여립을 체포해 오도록 해야겠읍니다』

이산해가 아뢰었다。

『토포사(討捕使)를 보내어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줄 압니다』

한 것은 영의정 유전이었다。

『빨리 거행하도록 하시오』

하고 임금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한편 정여립 측은 여립의 심복 변숭복이 조구(趙球)의 고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안악(安岳)에서 금구(金溝)로 3일만에 달려가서 여립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여립은 그날 밤으로 도망쳤다。

그때 홍계남과 그 일행은 정여립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여립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지않았을뿐만 아니라 이미 이영으로부터 여립의 체포엔 상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방만을 확인해 두는데 그쳤다。

그런 까닭에 금부도사 유담(柳湛)이 전주에 도착했을 땐 정여립은 피신한 연후였다。

10월8일。황해도 죄인들을 잡아와서 전정(殿庭)에서 국문했다。영의정 유전, 좌의정 이산해, 우의정 정언신, 판의금부사 김귀영(判義禁府事 金貴榮)이 번갈아 국문했다。그로써 정여립의 죄상은 보다 뚜렷해졌다。

9일。양사(兩司)는 이진길(李震吉)을 사관(史官)의 자리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전의를 했다。임금의 재가가 있었다。이진길은 정여립의 생질이었다。

11일。판돈영 정철(判敦寧 鄭澈)이 고양(高陽)으로부터 들어와, 임금에게 배알한 후, 비밀히 차자(箚子)를 올렸다。

그 내용인즉

『捕逆賊京城戒嚴事(포역적경성계엄사)』 즉, 빨리 역적을 체포하고 경성을 계엄하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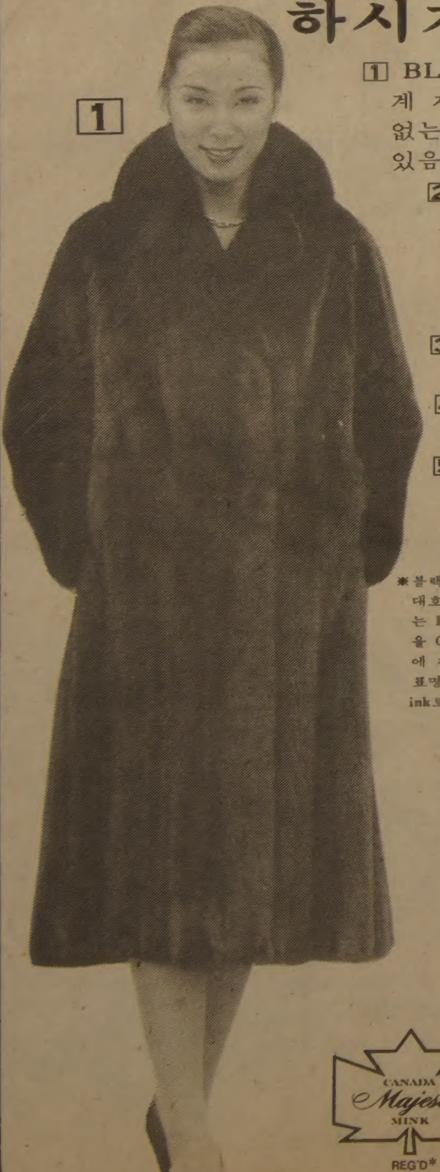
임금의 대답은 이러했다。

『益見卿忠節 當議處(익견경충절 당의처)』

즉, 경의 충절을 더욱 더 알 수 있다。의논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추풍과 더불어 한성의 정계는 어지럽게 흔들렸다。

혹시 서양인의 체형(体型)에 맞춰 만든 모피제품을 구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1

1 BLACK GLAMA MINK LONG COAT : 검은 밍크로서는 세계 제일로 손꼽히는 밍크코트. 일반 시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코트. 스킨 한장한장마다 Black Glama라는 마크가 찍혀 있음.

2 MAJESTIC DARK MINK JACKET : Black Glama와 쌍벽을 이루는 밍크. 제품 안쪽에 반드시 CANADA MAJESTIC MINK 라는 상표가 붙음. 이외에 Majestic Pastel Mink(옅은 밤색) Majestic Demi Buff(짙은 밤색) Majestic Sapphire Mink(잿빛) 등이 있음.

3 DEMI BUFF MINK STOLE : 역시 Majestic밍크로 스토울중에서는 최고급품.

4 밍크목도리(목도리 외에도 코트깃에 다는 여우 종류의 칼라가 있읍니다)

5 CANADIAN RED FOX JACKET : 여우 종류의 제품은 칼라 맷칭이 가장 중요. 양산(量産)하는 곳의 제품은 칼라매칭이 눈에 띄게 떨어짐.

캐나다, 특히 토론토와 몬트리얼에는 수많은 모피공장, 스토어가 있읍니다.

거의가 서양인의 몸에 맞게 디자인한 패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한국여성에게 맞을수는 없읍니다. 제품 100% 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당 공장은 오로지 동양여성 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COLLAR MATCHING+CUTTING+SEWING입니다.
3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6 BLUE FOX JACKET : 역시 Red Fox와 마찬가지로 제조상 어려운 것은 칼라맷칭. 특히 검은 빛을 띄우는 부분과 흰빛을 띄우는 부분의 맷칭이 뛰어난 기술을 요함.

☆오더 메이드 전문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 366-4497

월~금 : AM10 : 00~PM5 : 00

토 : AM10 : 00~PM2 : 00

※블랙 그라마(Black Glama)미국 오대호 주변의 밍크양식업자가 생산하는 Dark Mink중에서 최고급의 것을 Great Lakes Mink Association에 제출하여 Black Glam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있음. Dark Mink로서는 세계 제일로 군림함.

2

CANADA Majestic MINK REG'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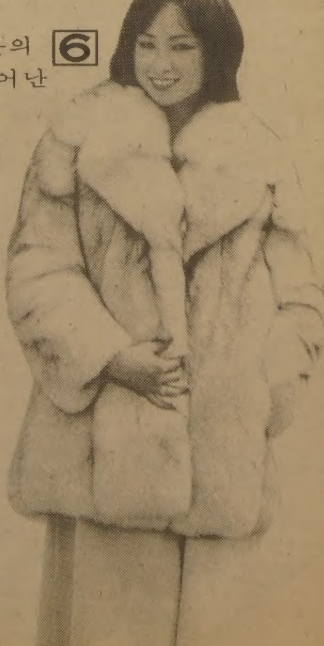
※마제스틱(MAJESTIC) = 캐나다에서 산출되는 최고급 밍크.

3

4

5

6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OPEN SUNDAYS

CHRISTMAS SPECIAL

Merry Christmas

* 저희 「도미니온 스멀웨어」는 학용품, 장난감, 초코바, 캔디, 껌, 약품, 하드웨어, 선물포장지, 부억용구, 펱 써플라이 등을 판매하고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도매상으로서 항상 친절하게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금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선물포장지,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츄리, 크리스마스 츄리라이트, 기프트 셑, 캔디케인, 게임, 토이 박스초크렛 등등 크리스마스 샾핑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골고루 갖추고 반액 할인대매출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1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일요일에도 오픈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 Duracelll Battery Special ''''

1300-2 'D'	55.20 (2.30ea)
1400-2 'C'	55.20 (2.30ea)
1500-2 'AA'	42.00 (1.75ea)
1604-1 '9V'	46.80 (1.95ea)

*Eveready Battery Special''''

1050BP 'D'	23.28 (.97ea)
1035BP 'C'	21.60 (.90ea)
1015BP 'AA'	33.12 (1.38ea)
216BP '9V'	22.56 (.94ea)

*Bic Lighter Special .73ea.
*Cross Pen Specials
Includes 10&14k GF, Sterling, Chrome, Black Matte Pens and Pen&Pencial Sets.

● X-MAS포장종이 스페샬

	소 매		스페샬
0997 Perkins 10 Roll Wrap 26"/400"	3.89	Case of 24	46.80(1.95ea)
0996 Perkins Jumbo Roll 30"/180"	2.29	Case of 60	69.00(1.15ea)
0504 Perkins Jumbo Roll Foil 26/100	2.49	case of 60	75.00(1.25ea)
0238 Perkins 6 Roll Paper 26"/300"	3.29	case of 24	39.60(1.65ea)
0245 Perkins 5 Roll Foil 26"/150"	4.29	case of 24	51.60(2.15ea)
0112 Perkins 10 Sheet Flat Combo	2.50	Case of 48	31.20(.69ea)
7901 R. F. I. each case contains; (32/4 Roll Paper 30"/192") (16/4 Roll Foil 30"/108")	2.49	case of 48	60.00(1.25ea)

● 크리스마스및 새해인사카드

	소 매	스페샬
E102 Royal Deluxe 18's	4.95	2.40
E103 Currier & Ives 16's	4.95	2.40
E119 X-mas Classic 16's	3.99	2.00
M101 X-mas Magic 32's	3.89	1.95
E 96 Family Ass't 51's	3.95	1.98
E350 Solid Pack 18's	3.50	1.75
M106 Best Wishes 25's	3.49	1.75
E116 Winter Magic 15's	3.00	1.50

● X-MAS CARDS, SEALS & STRING TAGS

	소 매	스페샬
AE11 24 Piece Tags with string	.69	8.75 (.35ea)
AE14 99 Piece Cards and Seals	.69	8.75 (.35ea)
1040 40 Piece Gift Cards	.69	8.75 (.35ea)
CE36 100 Piece Santa Seals & Tags	.95	12.00 (.48ea)

● X-MAS BOWS & RIBBON스페샬

	스페샬
7227 R.F.I. 25 Jewel Bows in Bag	12 bags 8.65(.72ea)
7028 R.F.I. Ribbon Drum 11 Roll/100'	12 bags 14.00(1.72ea)

● 크리스마스 나무장식용

	소 매		스페샬
1120 Tinsel Silver Icicles 300 strand or 1123 Tinsel Asst. Color Icicles 150 strand	.70		33.00(.34ea)
		Dozen price	4.44(.37ea)
1140 Tinsel Silver Icicles 500 strand or 1143 Tinsel Asst. Color Icicles 250 strand	.89		32.40(.45ea)
		Dozen price	6.00(.50ea)
22101 Tinsel 1 Ply Silver Garland 20'X1" or 22102 Tinsel 1 Ply Gold Garland 20'X1" or 22119 Tinsel 1 Ply Asst. Garland 20'X1"	1.59		38.40(.80ea)
		Dozen price	10.68(.89ea)
5581 Tinsel 8" Tree Top Fairy Princess	4.10		2.05

● X-MAS TREE LIGHTS

	소 매	스페샬
4799 Noma 20 Mini Light Set	3.69	1.70
254 Noma 10 Light Halo Tree Top	6.99	3.50
5544 Tinsel 10 Light Pom Pom Wheel	6.10	3.05
2015 Noma 15 Light Indoor Glow Set		
2115 Noma 15 Light Indoor Sparkle Set	10.20	5.49
5115 Noma 15 Light Outdoor Econel Sparkle Set	12.10	6.05
9139 Noma 15 Light Indoor Twinkle Set	11.55	6.25

● 크리스마스 나무

	소 매	스페샬
PD24 Noma 2' Decorated Tree Kit	12.85	6.45
323021 Tinsel 2½' Forest Green Pine	15.69	7.85
53754 Noma 4½ Forest Green Scotch Pine	30.89	15.45
563071 Tinsel 6' Forest Green Pine	47.49	23.75

● MAKE IT SNOW & X-MAS STENCILS

	소 매	스페샬
Make it Snow White 10 oz.	1.89	13.00(1.08ea)
Stencils	1.19	8.60 (.72ea)

● CONFECTIONERY SPECIALS

		스페샬
Smiles'n Chuckles Turtles 400g,	6.75	53.40(4.45ea)
Rowntree Black Magic 454g.(1lb.)	6.75	51.48(4.29ea)
Rowntree After 8 Mints 200g.	2.45	18.60(1.55ea)
Lowney's Cherries 300g.	3.99	25.80(2.15ea)
Moirs Selection 300g.	3.98	30.48(2.54ea)
Splendid Liquor Chocolates 8oz.	6.69	47.88(3.99ea)
Planters Regular Mixed Nuts 350g.	5.19	44.40(3.70ea)
Planters dry Roasted Peanuts 200g. Jar	1.99	17.88(1.49ea)
Neilson's Toffifay 391g.	6.59	54.00(4.50ea)
Kjeldsen's Butter Cookies 500g.Tin	4.99	17.94(2.99ea)

● 캔디

	소 매	스페샬
Allan's 33 Candy Canes Window Boxed	1.59	10.80(.90ea)
Allan's 5¢ Candy Canes 96 per box		3.45
Allan's 10¢ Candy Canes 48 per box		3.45
Allan's 55 Candy Canes	2.39	17.88(1.49ea)
Dominion 6 Pack Candy Canes	.75	5.40(.45ea)
Erasermate Pen Special !!!	2.49	14.40(1.20ea)

● 온갖종류 게임용 스페샬

	소 매	스페샬
Monopoly	15.90	51.00 (8.50ea)
Careers	11.90	38.70 (6.45ea)
Clue	13.90	45.00 (7.50ea)
Sorry	11.00	35.70 (5.95ea)
Yahtzee	8.25	27.00 (4.50ea)
Tiddley Winks	4.15	14.70 (2.45ea)
Checkers	5.10	16.50 (2.75ea)

● MATCHBOX SPECIAL

Blister Pack	2.10	13.20 (1.10ea)

● MENNEN X-MAS GIFT SETS

	소 매	스페샬
150346 Skin Bracer 125ml/Prop 125ml	4.45	2.85
150446 Skin Bracer 125ml/Cologne 125ml	5.09	3.30
150946 Skin Bracer 125ml/Soap-on-a-Rope	5.99	3.89
150646 Travel Kit; case with Speed Stick 75g/ Skin Bracer 125ml Protein 21 Shampoo 100ml	12.29	7.95

● J. B. WILLIAMS X-MAS GIFT SETS

	소 매	스페샬
6841 Aqua Velva 125ml/Lectric Shave 100ml	4.45	2.97
6842 Aqua Velva 125/Gillette Foamy 200ml	3.75	2.50
6844 Shaving Mug/Soap/Brush	6.39	4.26
6846 Travel Kit: Travel case with Aqua Velva 50ml Atra Razor	11.09	7.40
6847 Smart Set: 50ml each:Aqua Velva frost/lime/spice/surf	4.95	3.30
6849 Aqua Velva 50ml/ Lectric Shave 50ml	2.49	1.67

● BRUT 33 X-MAS GIFT 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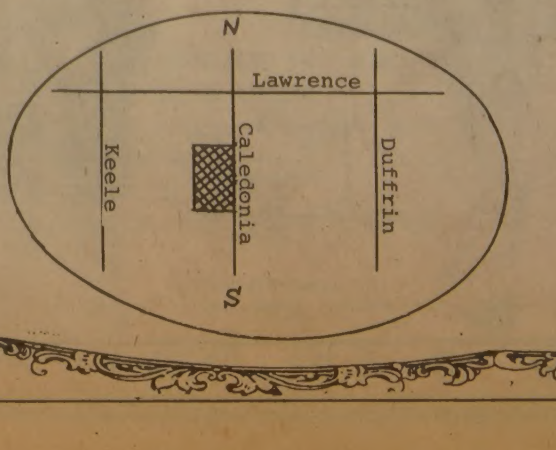
	소 매	스페샬
120 ml Splash/Spray Deodorant or 120ml Splash/Stick Deodorant	6.29	4.05
120 ml Splash/Soap-on-a-Rope	7.29	4.70
200 ml Splash/Spray Deodorant or 200 ml Splash/Cream Shave Or 200 ml Splash/Soap-on-a-Rope	8.99	5.80
Football Tote: 200ml Splash/75g Stick Deodorant/120ml Skin Moisturizer	11.40	7.35

● STOCKING STUFFERS

	소 매	스페샬
120ml Splash Brut 33	3.30	2.15
200ml Splash Brut 33	5.55	3.60

★OPENING HOUR
평 일 : 8 : 00AM~4 : 30PM
토요일 : 8 :00 AM~12 : 00NOON
일요일 : 8 : 00AM~2 : 00PM(From Nov. 8th~Dec. 20th)

★CASH & CARRY(캐쉬 & 캐리) 카스토마에게는 바라이어티 품목에 한하여 레귤러 디스카운트 외에 7% 더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읍니다(단, 크리스마스 스페샬은 제외)

일요일에도 오픈합니다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789-7215
789-7216